



코스피 2411.41 (+36.35)	코스닥 859.21 (+14.21)
금리 (미국 3년) 2.32 (+0.01)	환율 (원/달러) 1076.10 (-5.90) (6일)



[뉴스]
스튜어드십 코드로
공공성 강화 나선
국민연금
03



대북 특사단, 김정은 내외 만찬

북한을 방문 중인 정의용 수석 대북특사 등 특사단이 지난 5일 평양에서 열린 만찬에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등과 환담하고 있다. 만찬에는 김 위원장 부인 리설주,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등이 배석했다. /연합뉴스

새도보팅제 폐지 후 첫 주총시즌

(의결권 대리행사)

“의결정족수 못 채워 주총 무산될라” 속 끓는 상장사

2018 新 주총시대

소액주주 주식보유기간 짧아
실제 주총 참여율 1.9% 불과
주총 무산·부결 대거발생 우려



1973년 12월 18일 상장사 100개사 달성을 기념해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창립 총회가 열렸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상장사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새도보팅제(shadow voting·의결권 대리행사 제도)가 완전 폐지된 후 처음 열리는 주총이기 때문이다. 각사는 주요 안건에 대한 의결정족수를 채울 수 있을지 장담하지 못하고 있다.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주총 자체가 열리지 못하거나 안건이 부결되는 상장사가 대거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새도보팅제는 주주가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않아도 투표한 것으로 간주, 다른 주주들의 투표 비율

을 의안 결의에 그대로 적용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동일한 지분을 소유한 주주 100명 중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주가 10명일 경우 해당 안건에 대해 7명이 찬성하고 3명이 반대하면 출석하지 않은 나머지 90명의 주주에 대해서도 똑같은 비율로 표결에 참여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과거 주주들은 기업 경영보다

배당에 대한 관심이 컸다. 때문에 주주들은 회사 주총에 무관심했고, 기업들은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주총이 무산되기 일쑤였다. 이에 정부는 의결권 대리행사 제도에 대해 7명이 찬성하고 3명이 반대하면 출석하지 않은 나머지 90명의 주주에 대해서도 똑같은 비율로 표결에 참여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 2014년부터 새도보팅이 폐지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새도보팅이 최대 주주 입맛에 맞는 결정을 위해 악용되면서 주주 전체 의사를 왜곡한다는 지

적과 함께 기업 지배구조 선진화를 위해선 주주들의 입김이 강화돼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렸기 때문이다. 이에 3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작년 말 완전 폐지됐다.

◆ ‘3%룰’ 지켜질 수 있을까?
올해 새도보팅을 이용할 수 없는 첫 주총 시즌이 다가오자 주총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 법무부가 서울 대산학협력단에 용역한 ‘새도보팅

실태 분석 및 폐지에 따른 대응방안 연구’를 보면 2014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새도보팅을 통해 의결된 주총 안건은 6268개로 나타났다. 이중 73.2%(보통결의 기준)는 새도보팅이 없었다면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했을 것으로 분석됐다.

상법상 주총에서 안건이 통과되기 위해선 발행주식 총 수의 25% 이상 찬성과 출석주식 수 과반의 찬성이 필요하다. 그러나 소액주주 비율이 높은 상장사의 경우는 주주들이 단기 투자를 위해 접근했기 때문에 주총 자체에 관심이 없는 경우가 태반이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 따르면 소액주주들의 평균 주식보유기간이 5개월(코스피 4.9개월, 코스닥 2.2개월)도 채 안된다. 주총에 참여할 가능성이 낮다는 의미다. 또 실제 소액주주의 주총 참여율은 주

식수 대비 평균 1.88%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 큰 문제는 감사를 선임해야 하는 상장사다. 이사 선임, 임원 보수 승인 등과 달리 감사 선임에는 ‘3%룰’이 적용된다. 3%룰은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은 감사선임 안건에 대해 3% 이내의 의결권밖에 행사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주주의 독단적인 감사선임을 견제하기 위해서다.

가령 최대주주가 30%의 지분을 갖고 있더라도 감사 선임에는 3% 지분만 인정한다. 정족수(25% 이상)를 채우기 위해서는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을 제외한 22% 주주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러한 조건을 채우지 못해 감사를 선임하지 못하면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도 있다.

(3면에 계속)

/손영지 기자 sonumji301@metroseoul.co.kr

삼성전자, 인도 스마트폰 시장 1위 수성 자신감

고동진 “유통망, 브랜드 등 앞서… 걱정 안해도 돼”

(삼성전자 IM부문 사장)

“인도 시장은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고동진 삼성전자 무선사업부(IM) 사장이 세계 3대 스마트폰 시장인 인도 시장 수성에 나선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4분기 인도에서 스마트폰 시장점유율 1위를 샤오미에 내줬다. 이 때문에 IM 사업부 위기설까지 대두됐지만 고동진 사장은 인도 시장에 대한 1위 수성을 넘어 경쟁사를 압도하는 성과를 내겠다고 자신했다.

20여년 이상 인도에서 쌓아온 탄탄한 브랜드 이미지와 현지 거대선과의 관계,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 2018’에서 공개한 갤럭시 S9에 대한 자신감 등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6일 시장조사기관카운터포인트 리서치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해 4분기 인도 시장에서 점유율 23%를 기록하며 중국 샤오미(25%)에 1위 자리를 내줬다.

2016년 4분기 9%에 불과했던

샤오미의 점유율은 1년 만에 3배 가까이 상승한 반면, 삼성전자는 2016년 4분기 24%에서 지난해 4분기 23%로 점유율이 줄었다.

수치는 크지 않지만 삼성전자가 인도 스마트폰 시장에서 1위를 빼앗긴 것은 2011년 이후 처음이다.

특히 인도는 지난해 미국을 제치고, 중국에 이어 연간 1억 대 이상 스마트폰이 팔리는 세계 두 번째 시장으로 커진 상황에서 글로벌 스마트폰 1위의 삼성전자의 입

지가 흔들리고 있는 것 아니냐는 아니냐는 분석이 이어졌다.

고 사장은 MWC 2018에서 인도 시장에 대한 이 같은 시선에 대해 “삼성전자가 (브랜드) 가치나 판매량에서 압도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고 자신했다.

이어 “인도시장은 삼성전자가 유통전략이나 거대선과의 관계 등 측면에서 오랜 시간 공을 들여왔기 때문에 걱정을 안 해도 좋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고동진 삼성전자 IM사업부 사장

/삼성전자

고 시장의 이 같은 자신감은 삼성전자가 1995년 인도에 진출한 이후 단순히 가전제품을 판매하는 기업이 아니라 인도 사회를 깊이 이해하고, 발전에 기여하는 기업으

로 이미지를 굳혔기 때문이다. 이는 2년 연속 인도에서 가장 신뢰받는 IT 브랜드로 선정된 것에서도 증명된다.

(4면에 계속)

/정은미 기자 21cindium@

위기의 오프라인 유통채널, 혁신 나선다

무인편의점·AI 가이드... '리테일 테크'로 유통4.0 선도

롯데·현대·신세계 등 '빅3'
AI·VR 도입 쇼핑몰 잇따라 선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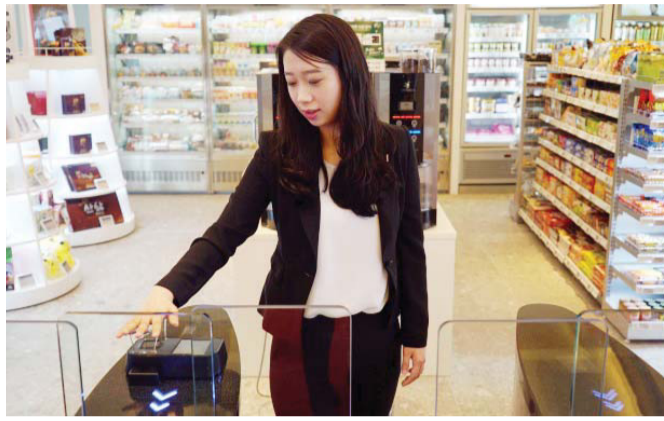
세븐일레븐 등 편의점업계도
직원 없는 무인점포 시스템 운영

A씨는 점심시간에 봄 신상 원피스를 보기 위해 회사 근처 백화점에 간다. 그는 매장 직원이 아닌 로봇의 응대를 받아 '3D 가상 피팅'을 이용해 새 옷을 입어본다. 마음에 들면 스마트폰에 눈을 비추고 로그인과 결제까지 완료한다. 회사로 돌아가는 길에 A씨는 무인편의점에 들러 음료와 과자 등을 고르고 간편히 구매한다.

인공지능(AI), 가상현실(VR) 등 첨단 정보기술(IT)을 활용한 '리테일테크'가 오프라인 채널(유통업계)의 판을 뒤엎고 있다. 아마존은 인공지능 플랫폼 '알렉사(Alexa)'로 대화형 커머스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계산대가 없는 무인점포 '아마존고'를 열어 유통의 미래를 제시했다. 알라바마도 가상현실 속에서 체험할 수 있는 가상현실(VR) 쇼핑몰을 선보이며 전자상거래 이후를 준비하고 있다. 이에 뒤질세라 국내 유통기업도 일부 AI 시스템을 도입하고, VR 쇼핑몰을 선보이는 등 변화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롯데백화점 지하 1층에 위치한 휴머노이드 '페퍼'(왼쪽)와 '세븐일레븐 시그니처'에서 핸드페이하고 있는 고객.



/유재희 기자·세븐일레븐

◆ '유통 4.0 시대' 맞은 '빅3'의 경쟁

국내 유통업계의 빅3인 롯데·현대·신세계 백화점도 4차 산업 기술을 활용해 오프라인 쇼핑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일으키고 있다.

롯데백화점은 지난해 AI 로봇 '페퍼'와 AI 쇼핑가이드 챗봇 '로사'를 선보였다. 본점에 있는 '엘봇'은 고객에게 매장 위치 설명과 추천은 물론 외국인 고객을 위한 통역 상담원도 연결해준다. 또 3D 가상 피팅 서비스와 픽업 데스크 이용 방법도 소개한다.

3D 가상 피팅서비스를 이용한 고상형(22)씨는 "3D 피팅 디지털 거울을 통해 신체 사이즈를 측정해 다양한 브랜드 상품을 입어볼 수 있다"며 "특히 마음에 드는 상품의 가격과 매장 위치 등 상품정보를

개인 휴대폰으로 전송까지 할 수 있어 편리하다"고 답했다.

현대백화점은 오프라인 매장에서 가상현실과 생체인증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현대백화점의 'VR(가상현실) 스토어'는 온라인에 오프라인 매장을 재현한 공간이다. 온라인몰에서 더현대닷컴 VR스토어에 접속하면 현대백화점 판교점의 실제 매장 모습을 둘러볼 수 있다. 특히 VR기술이 활용된 체험형 쇼핑은 고객의 흥미를 유발해 매장 체류시간도 늘리고 매출증대도 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더현대닷컴'과 '현대더몰' 모바일 앱에는 홍채인증을 통한 로그인도 가능하다. 생체인증 로그인 서비스는 백화점과 흡수 판매업계에서 최초로 도입하는 기술이다. 패

스워드없이 눈동자만으로도 로그인을 할 수 있어 편리성을 크게 높였다.

신세계백화점은 지난해 업계 최초로 빅 데이터를 분석해 고객 개개인이 선호하는 브랜드와 소포장정보를 제공하는 AI 시스템 '마인드'를 선보였다.

S마인드는 가입된 고객의 최근 구매패턴·선호장르·매장 내 이동 동선 등을 분석해 맞춤형 쇼핑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지난해 말 S마인드가 활용된 신세계 백화점 엠은 고객들의 긍정적인 호응을 받아 회원이 100만 명을 돌파하기도 했다.

◆ '아마존 고' 쫓는 편의점업계

무인점포사업은 인건비에 대한 부담이 매년 늘고 있는 상황에서 유통업계 기업들의 중장기적 대책안으로 자리 잡고 있다. 롯데와 신세계는 지난해부터 편의점

사업에서 무인점포 개발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였다.

롯데의 계열사인 세븐일레븐은 지난해 5월 첫 무인점포인 롯데월드타워에 무인편의점 '세븐일레븐 시그니처'를 오픈했다. 시그니처점에는 롯데카드의 '핸드페이' 기술이 적용됐다. 사람마다 다른 정맥의 혈관 굵기, 선명도 등을 패턴화해 판별하는 정맥인증을 통해 결제 서비스가 가능하다.

신세계의 이마트24도 현재 전국의 6개 지역점에 무인편의점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한편 국내 리테일테크의 현실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 있다.

류한석 기술문화연구소장은 "무인상점의 선도주자 아마존은 상당한 자체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며 "하지만 국내 유통업체들중에선 자체적으로 핵심 기술을 확보한 곳이 없어 외부에서 도입해야 하는 상황이라 무인상점 활성화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긍정적인 평가도 있다. 차운지 삼정KPMG 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리테일테크를 기반으로 한 유통 4.0으로 거래비용이 절감 등 효율성이 증대됐다"며 "제조사와 고객 간의 정보 비대칭성도 완화된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유재희 기자 ryusoul91@metroseoul.co.kr

한줄뉴스

정책·사회

▲ 6·13 지방선거 이후 수도권 대중교통 요금 인상이 추진될 전망이다.

▲ 무리한 해외자원개발로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한국 광물자원공사가 결국 다른 공공기관과 통합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

▲ 황사에 미세먼지까지 기승을 부리는 봄철이 다가오면서 공기청정기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올해는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능을 갖춘 제품들로 선택폭이 다양해졌다.

▲ 국내 저비용항공사(LCC)들이 봄철 여행을 준비하는 여행객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금융·마켓·부동산

▲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은 15개 자산운용업계 대표들과 간담회에서 상품개발, 판매, 운용 및 사후관리 등 모든 업무단계에서 투자자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영업원칙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 지난 달 외환보유액이 1달 만에 감소세로 전환했다. 한국은행은 미 달러가 강세를 보인 영향으로 외환보유액은 4000억 달러에 조금 못 미쳤다고 밝혔다.

▲ 조용만 조폐공사 사장은 6일 기획재정부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사회적 가치 실현 선도 등 5대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유통

▲ 정구호 헤라서울패션위크 총감독이 글로벌 패션업계와 협업체계를 구축, 헤라서울패션위크의 글로벌 위상을 강화하고 신진디자이너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석탄공·마사회 등 공공기관 7곳 동반성장 미흡

중소벤처기업부 58곳 평가

발전 5개사·가스공 등 9곳 '우수'

한석탄공사, 한국마사회, 한국석유공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정보화진흥원, 주택관리공단 등 7곳의 공공기관들이 거래 중소기업 등과의 동반성장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관은 기획재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도 불이익을 받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58개 공공기관이 제출한 2017년 동반성장 추진 실적을 평가해 6일 내놓은 결과 이들 기관이 가장 낮은 '개선'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외에 9개 기관이 '우수'를, 20곳은 '양호'를, 22개 기관은 '보통'으로 각각 평가됐다.

《2017년도 평가결과 등급별 기관현황》

등급	기관명(58개)		
	공기업형 (29개)	준정부형(21개)	기타형(8개)
우수 (9개)	남동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서부발전, 중부발전	가스안전공사, 국토정보공사, 산업단지공단	원자력연료
양호 (20개)	가스공사, 도로공사,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지역난방공사, 토지주택공사, 한국전력기술, 한수원, 한전, 한전KPS	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어촌공사, KOTRA, 도로교통공단, 에너지공단, 원자력환경공단, 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공사, 디자인진흥원, 콘텐츠진흥원
보통 (22개)	가스기술공사, 관광공사, 광물자원공사, 공항공사, 수자원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조폐공사, 철도공사, 한전KDN	공무원연금공단, 교통안전공단, 국민연금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 근로복지공단, 산업인력공단, 송강기안전공단, 철도시설공단	광해관리공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코레일유통
개선 (7개)	석탄공사, 마사회, 석유공사	산업안전보건공단, 인터넷진흥원, 정보화진흥원	주택관리공단

상생협력법 제19조에 따라 진행되는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는 공공기관의 동반성장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2007년 이후 매년 평가하고 있다.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평가하

던 것을 지난해 중기부가 출범하면서 업무도 이관, 지금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전담해 하고 있다.

평가는 동반성장 추진실적과 중소기업 대상 체감도 조사 결과를 합산해 우수, 양호, 보통, 개선의 4개 등

급으로 실시한다. 우수가 가장 높고, 개선은 가장 낮은 등급인 셈이다.

공공기관 중 몸집이 큰 대기업에선 남동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서부발전, 중부발전 등 발전 5개사가 가장 높은 '우수'등급을 받았다. 가스안전공사, 국토정보공사, 산업단지공단, 원자력연료도 '우수'로 평가됐다.

한국전력, 토지주택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한국농어촌공사, KOTRA 등은 두번째로 높은 '양호' 등급을 받았다.

중기부 관계자는 "미흡한 기관에 대한 기관의 특성에 부합하는 동반성장 전략과 과제를 제시해 줄 것을 권고했다"면서 "또한, 공공기관의 동반성장을 위한 변화가 지속되기 위해선 기관장의 의지가 매우 중요한 만큼 지속가능한 동반성장 생태계 조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김승호 기자 bada@

1년차 이하 신입사원 '퇴사율' 가장 높다

사람인 '퇴사자 현황과 변화'

최근 1년간 1년차 이내 신입사원 10명 중 5명이 회사를 그만둔 것으로 나타났다. 퇴사 이유는 이직이 가장 많았다.

6일 사람이인 기업 인사담당자 657명을 대상으로 '퇴사자 현황과 변화'에 대해 조사한 결과 최근

1년간 직원 퇴사율은 평균 17%였다. 그 중 1년차 이하 신입사원의 퇴사율이 49%로 가장 높았다고 나타났다.

기업들이 밝힌 지난 1년간 평균 퇴사율은 '10% 미만'이 32.3%로 가장 많았고, '10~20%'(24.5%), '20~30%'(15.2%), '30~40%'(11.4%) 등이 뒤를 이었다. '한 명도 없다'는 기업은 11.7%였다.

적어도 1년에 1명 이상의 퇴사자가 있는 셈이다.

퇴사가 가장 많은 시기는 '12월'(17.6%), '2월'(12.6%), '1월'(11.6%) 순으로, 인사이동이나 연봉 협상이 있는 연말연초였다.

직원 연차별로 '1년차 이하' 신입사원 퇴사율(49%)이 가장 높은 가운데, '2년차'(20.9%), '3년차'(13.4%), '4년차'(5%) 등으로 연차가 높아질수록 퇴사율이 감소했다.

성별로 남성 퇴사자 비율이 50.3%로 여성(26.4%)보다 23.9%p 높았다.

/한용수 기자 hys@



지난해 인도 뉴델리에서 진행된 '갤럭시 S8'·'갤럭시 S8+' 미디어 행사 사진. /삼성전자

고품질·소비자 신뢰 바탕 인사 공격적 마케팅 시동

>> 1면 '삼성전자, 인도...'서 계속

7만여명 고용창출 효과 긍정 영향
등한시켰던 온라인 판매도 확대

삼성전자는 인도의 유력 경제일간지인 더이코노미타임스와 시장조사업체 닐슨이 선정 발표한 '2017년 가장 신뢰받은 브랜드' 리스트에서 2년 연속 가전과 휴대폰·태블릿 부문에서 1위를 차지했다.

삼성전자는 인도에서 7만여명의 고용을 창출해내며 국가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MWC 2018에서 주목받은 갤럭시 S9도 고 사장의 또 다른 자신감이다. 갤럭시 S9은 '인피니티 디스플레이' 디자인과 초당 960프레임을 촬영해 찰나의 순간을 포착할 수 있는 '슈퍼 슬로' 카메라 기능, 증강 현실(AR) 이모지(그림문자) 등 한 단계 진화한 성능으로 국내외 주목을 받았다.

삼성전자는 이러한 갤럭시 S9를 등에 업고, 이날 인도 뉴델리에서 기자와 유통 선을 대상으로 한 행사를 시작으로 공격적인 마케팅에 나섰다. 특히 그간 오프라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등한시했던 온라인 판매도 확대한다. 온라인을 통해 갤럭시 S9을 판매기로 한 것이다.

여기에 지난 20여년 신뢰를 쌓아온 현지 통신사 및 유통업체와 협업해 소비자가 직접 스마트폰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다수 확보하고, 마케팅을 강화한다.

업계 관계자는 "인도는 지난해 중국에 이어 두번째로 큰 스마트폰 시장으로 성장할 정도로 최근 급성장하고 있다"며 "삼성전자는 그간의 제품 판매를 넘어 다양한 혁신 노력과 사회봉사 활동 등을 통해 현지 소비자들의 신뢰를 유지했고, 올해 이러한 신뢰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인도 시장 수성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에이브릴 위즈에이아이. /SK이노베이션

국내 최초로 AI서비스 종합방법론 개발

SK C&C '에이브릴 위즈에이아이' 컨설팅부터 운영까지 한번에 지원

SK C&C는 국내 최초로 인공지능 서비스 발굴 및 시스템 개발·운영을 위한 종합 방법론인 'Aibril(에이브릴) WizAI(위즈에이아이)'를 개발했다고 6일 밝혔다.

SK C&C는 인공지능 서비스를 빠르고 쉽게 도입할 수 있는 종합방법론인 에이브릴 위즈에이아이(에이브릴 위즈에이아이)를 모든 산업에서 인공지능 서비스 모델을 더욱 활발히 구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에이브릴 기반의 '인공지능을 만들어 주는 마법사'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에이브릴 위즈에이아이(에이브릴 위즈에이아이)는 언제든 고객의 해결 과제에 대해 최적의 인공지능 서비스 도입 컨설팅부터 서비스 설계·구축·운영까지 한번에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설계 됐다.

고객에 맞는 인공지능 서비스 사업 모델 발굴부터 ▲자연어 기반 AI 지식 데이터베이스 구축 ▲AI 비즈니스 및 서비스 모델 구현 ▲에이브릴 기반의 시스템 구

축 및 운영 등 AI 서비스 구현과 관련된 모든 내용을 담고 있다.

SK C&C는 에이브릴 위즈에이아이(에이브릴 위즈에이아이)를 통해 고객의 AI서비스 도입 신뢰도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I서비스 도입의 컨설팅 단계인 에이브릴 위즈에이아이의 고객가치측정(CVA)은 산업별 다양한 AI 활용 유스 케이스 모델을 참조해 ▲고객 맞춤형 인공지능 신사업 기회 발굴 ▲인공지능 도입 평가 KPI(핵심성과지표) 수립 ▲중장기 로드맵 도출 등을 빠르게 지원해 준다.

에이브릴 위즈에이아이(에이브릴 위즈에이아이)는 특히 AI시스템의 가장 어려운 부분으로 꼽히는 데이터의 AI분석 체계 구현에서 강점을 발휘한다.

정형 데이터뿐만 아니라 고객들이 그동안 보지 못했던 워드·텍스트·이메일·게시판 등의 방대한 비정형 데이터를 빠르게 변환시키며 머신러닝·딥러닝을 활용 고객 맞춤형 분석 모델을 도출해 낸다.

【구서준 기자 yuni2514@

“경쟁력의 원천, 시장·고객에 있다”

구본준 LG부회장

변화에 맞춰 단위사업 경쟁력 강화
사업별 기회·위험 정확 파악 필요

구본준 LG 부회장이 LG그룹 임원들에게 “경영환경의 위기가 고조될수록 사업 경쟁력의 원천은 시장과 고객에 있음을 상기해달라”고 당부했다.

LG는 6일 오전 여의도 LG트윈타워에서 최고경영진 및 임원 400여명이 모인 가운데 3월 임원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구 부회장은 “연초부터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대내외 사업 여건이 크게 악화되고 글로벌 경기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계열사들의 1분기 실적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이어 “이 같은 환경에서 단위 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환경변화에 따른 사업별 기회와 위협요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기존 사업계획과 중장기 전략에 대한 유효성 점검이 필



구본준 LG 부회장. /LG그룹

요하다”고 말했다.

구 부회장은 이에 “시장을 선도하는 경쟁우위 사업의 경우 기존 성공체험을 기반으로 제 2의 ‘시그니처 가전’ 또는 제 2의 ‘후’, ‘숨’과 같은 LG만의 성공방식을 확대해 확고한 시장 지위를 유지해 나가

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부진한 사업에 대해 구 부회장은 “시장과 고객의 요구에 맞춰 사업 방식을 철저하게 바꾸고 신속한 전략적 변화와 제도 수정을 통해 사업의 체질을 개선하는 동시에, 활로를 모색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LG 경영진은 이날 대전 선병원 의원들의 선승훈 의료원장을 초청해 ‘다테일 경영’을 주제로 강연을 들었다.

선병원원은 의료 서비스의 다테일 혁신에 승부를 걸어 해외 환자 유치와 병원 시스템 수출에 성공해 주목받고 있다.

선원장은 이날 강연에서 환자에게 최선의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하더라도 고객의 불편 요소를 찾아 개선하고, 이를 매뉴얼화해 시스템으로 발전시키는 다테일 경영 노하우를 소개했다.

그 결과 선병원원은 지난 5년간 2만여명 이상의 해외 환자를 유치하고, 국내 최초로 유럽에 병원 의료 시스템을 수출해 국내외 의료기관이 벤치마킹하고 있다.

【정은미 기자 21cindiun@metroseoul.co.kr

LG전자, 인도서 ‘카르살람’ 보훈 캠페인

〈‘경례하다’는 뜻의 힌디어〉

군인·보훈가족에 감사 마음 전해
응원메시지 영상으로 기네스 도전
69가구 선정 냉장고 등 제품 전달

LG전자가 인도에서 군인과 보훈가족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카르살람’ (‘경례하다’는 뜻의 힌디어)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지난 1월부터 50여 유통매장을 비롯해 학교, 관광지 등 다양한 곳에서 “군인들이 있기에 인도 시민들이 365일 안전하게 지낼 수 있어요!”라고 외치는 시민들의 모습으로 진행되고 있다. 현재까지 8만5000여 명의 시민들이 영상 메시지를 남겼다.

LG전자는 세상에서 가장 긴 응원 영상을 제작해 기네스에도 도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LG전자는 올해가 인도 헌법이 제정된 지 69주년이 되는 해인 단



인도 시민들이 군인들에게 보낼 영상 메시지를 녹화하고 있다. /LG전자

크인도 국경수비대(BSF)와 함께 국가 유공자, 유족 등 69가구를 선정해 냉장고, 세탁기, 정수기, 오디오, 스마트폰 등 5개 제품을 내달 전달할 예정이다.

LG전자 인도법인의 매출은 지난해 약 20억 달러 규모로 1997년 진출 첫 해

와 비교하면 60배 가까이 성장했다. 임직원 수는 같은 기간 동안 400여 명에서 현재 3400여 명으로 8배 이상 늘었으며, 임직원 99% 이상이 현지인일 정도로 인도 현지의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정은미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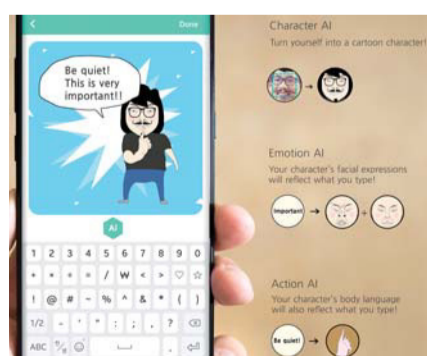
삼성전자, 美 SXSW서 우수 C랩 과제 공개

세계 최대 IT·엔터테인먼트 페스티벌
투스퀘어 등 AI 활용한 과제 선보여

삼성전자가 오는 11~14일 미국 텍사스 오스틴의 오스틴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는 ‘사우스바이사우스웨스트(SXSW) 트레이드쇼’에서 인공지능(AI) 관련 C랩 우수 과제 3개를 선보인다고 6일 밝혔다.

세계 최대 IT·엔터테인먼트 페스티벌인 SXSW는 음악, 영화, 인터랙티브를 주제로 오스틴 곳곳에서 전시, 컨퍼런스, 페스티벌을 여는 행사다. 이 중 트레이드쇼는 전 세계 스타트업과 벤처 기업들이 최신 기술을 선보이는 전시 행사다.

이번에 전시되는 C랩 과제는 ▲글을 쓰면 자동으로 그에 맞는 만화(카툰)를 만들



글을 쓰면 자동으로 그에 맞는 만화(카툰)를 만들어주는 SNS인 ‘투스퀘어’. /삼성전자

어주는 SNS인 ‘투스퀘어(Toonsquare)’ ▲유사 홀로그램 기술이 적용된 캐릭터가 등장하여 보이는 음성 비서인 ‘오로라(Aurora)’ ▲게임 속 사물을 활용한 실시간 광고 중개 플랫폼인 ‘가젯(GADGET)’ 등

이다.

투스퀘어는 글을 쓰면 자동으로 만화를 만들어 주는 인공지능 SNS 서비스로, 그림을 전혀 못 그리는 사람도 서비스를 이용해 만화를 만들 수 있다.

애플리케이션에서 제공하는 캐릭터 또는 본인이나 닮은 꼴 캐릭터를 선택한 후 문장을 입력하면, 인공지능이 문맥을 파악해 캐릭터의 표정과 동작을 추천해 주고 만화 형태로 보여준다.

오로라는 보이는 음성 비서로, 해당 디바이스에 스마트폰을 거치하면 유사 홀로그램 형태의 귀여운 캐릭터인 오로라가 나타나 사용자와 대화하듯이 표정과 동작을 지으며 음성 비서 기능을 수행한다.

기존 음성 비서가 음성만으로 대화했다면, 오로라는 사용자와 눈을 맞추며 감정적인 교감이 느껴지게 해 준다는 게 특징이다.

【정은미 기자

미세먼지 본격 공습... 우리 집에 맞는 공기청정기는?

코웨이 빅데이터로 맞춤형 관리
청호나이스 초고성능 ULPA 필터
교원웰스 공기 순환시간 3배 단축
웅진그룹 초강력모터로 흡입 강화
카도 소음·진동 적고 디자인 눈길



‘휘바람 숨소리 ULPA 공기청정기’와 모델 테리 버츠. /청호나이스

황사에 미세먼지까지 기승을 부리는 봄철이 성큼 다가오면서 공기청정기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최근엔 4차 산업혁명의 바람을 타고 공기청정기에도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능을 갖춘 제품이 늘고 있어 선택폭이 다양하다.

6일 생활가전업계에 따르면 코웨이가 출시한 ‘멀티액션 공기청정기(AP-1516 D)’는 깨끗한 공기를 내보내는 토출구를 전면 및 상부에 배치해 거실 등 멀리 떨어진 넓은 공간까지 빠른 공기 청정이 가능하게 장점이 있다.

▲파란색(중음)▲녹색(보통)▲노랑색(나쁨)▲붉은색(매우 나쁨)으로 실내 공기의 오염 상태를 멀리서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빅데이터를 활용해 계절과 생활 환경, 공간 등 여러 상황에 따라 황사필터, 이중 탈취 필터, 새집 증후군 필터 등을 교체하는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청호나이스의 ‘휘바람-숨소리 ULPA’ 공기청정기는 원자력 연구의 초기 단계에서 방사능 물질이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개발된 ULPA 필터를 사용하고 있다. 이 필터는 0.1μm 입자에 대해서도 포집 효율이 99.99% 이상인 초고성능 필터로 꼽힌다.

유입된 공기는 프리필터→미디엄필터→ULPA필터→탈취필터를 거치면서 깨끗한 공기로 탈바꿈한다. 또 먼지센서를 통해 실내공기 중에 있는 미세먼지와 분진을 자동으로 감지, 공기오염도를 4단계로 표시하며 자동모드 설정 시 공기오염도에 따라 청정기의 풍량을 자동으로 조절해 준다.

교원웰스의 ‘웰스 제로’ 공기청정기는 병원이나 실험실에서 주로 사용되는 H14 등급의 ‘제로 클리어 헤파필터’를 탑재했다. 특히 H14등급은 헤파필터 중 가장 높은 단계로 공기 중 1.0μm(마이크로미터·1μm=100만분의1m)의 미세먼지부터 0.3μm의 극초미세먼지 및 유해 바이러스까지 99.995% 제거한다.

아울러 기능이 서로 다른 2개의 팬으로 구성된 ‘하이브리드 듀얼팬’을 장착해 공기 흡입과 배출 기능을 강화, 기존 제품에 대비 집안 내 공기를 순환시키는데 걸리는 시간을 3배 이상 줄인 것도 장점이 있다.

웅진그룹의 웅진렌탈이 생활가전시장에 출시표를 던지고 선보인 ‘타워청정기’는 그리스의 파르테논 신전을 연상시키는

원기둥 디자인을 차용해 360도 전 방향에서 경쟁모델 대비 1.5배 넓은 흡입 면적으로 빠르게 공기를 흡수할 수 있다. 아울러 터보팬과 초강력 모터로 빠르게 공기를 모아주고 신선한 공기를 멀리 보내준다.

이 제품은 유럽 헤파필터(HEPA Filter) 인증기관인 필텍 스위스의 성능 검증을 받은 13등급의 헤파필터를 적용해 성능 및 안전성을 보장받았다.

일본계 공기청정기 제조사인 카도(cado)도 한국 시장에서 판매를 본격화했다.

카도 공기청정기는 소니 워크맨을 만들었던 핵심 엔지니어와 도시바의 디자이너가 합작한 프리미엄 제품을 지향하고 있다.

이 회사 제품은 ‘청정공기 공급률’에서 최고치를 획득하며 공기정화 속도를 인정받았다.

11평형에 적합한 ‘AP-C200’ 제품의 경우 스크래치 방지를 위해 베이킹 파우더 코팅으로 표면을 마무리한 스테인리스 스틸 바디로 외관상 아름다움을 더해 ‘IF 디자인 어워드 2017’을 수상했다. 특히 이음새가 없어 진동과 소음이 적고 몸체 옆면 흡입구가 360도로 공기를 빨아들여 공기 정화에도 효과적이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1 웅진렌탈 ‘타워청정기’.
 2 코웨이 멀티액션공기청정기.

운전자 안전 확보 ‘굿’... 자율주행은 ‘글썸’



테슬라 ‘오토파일럿’

자율주행 5단계 중 2단계 수준
 車 스스로 규정 속도 맞춰 주행

아직 개발이 한창인 만큼 완벽한 자율주행을 경험하기 부족했다. 현재 최종 단계인 완벽한 자율주행을 가진 5단계가 아닌 2단계 수준이다.

미국 전기차제조사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인 ‘오토파일럿(자율주행 보조 시스템)’을 체험한 결과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테슬라는 전기차와 자율 주행 자동차에 초점을 맞추고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미래를 향한 야심 찬 목표와 아이디어로 회사를 운영하는 것이 테슬라의 기업 정신이기도 하다.

테슬라는 2016년 5월 자사 전기자동차의 운전자의 주행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오토파일럿을 선보였다. 오토파일럿은 전방 카메라와 레이더, 차량 둘레에 있는 초음파 센서로 차량을 조종하고 속도를 조절한다. 덕분에 소비자들은 테슬라 차량의 뛰어난 연비와 유지비용 이외에도 자율주행 모드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오토파일럿 시연은 경기도 김포시 한 국타임즈항공을 출발해 인근 도심을 주행하는 약 5km 구간에서 진행됐다. 오토파일럿은 주행중 핸들 왼쪽 방향지시 아래에 위치해 있는 레버를 운전자 쪽으로 두번 당기면 활성화된다. 차가 없는 한산한 도로는 물론 가다 서다를 반복하는 구간에서도 유용했다.

오토파일럿을 실행하자 차량이 스스로 도로 규정 속도에 맞춰 주행했다. 앞

차와 차간 거리도 유지하고 굴곡진 도로를 미리 예측하고 안정적으로 빠져나갔다. 오토파일럿 작동시 운전자는 핸들을 감싸야 한다. 10초 이상 손을 떼면 경고음이 울린다. 운전자가 운전이 지속적 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3차선이 넘는 도로에서는 방향지시등을 켜는 곳으로 차선 변경도 가능하다.

다만 아쉬운 점은 급격한 코너와 차선이 없는 구간에서는 오토파일럿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또 교차로 등 교통신호를 받아 주행해야 하는 구간에서는 국내 통상 규제로 인해 테슬라가 보유하고 있는 자율주행 기술을 완벽하게 이용할 수 없었다.

현재 테슬라를 이용하는 국내 소비자 들은 2단계 수준까지다.

/양성운 기자 ysw@



테슬라 모델 S P100D.

대우전자서비스, 애플 프리미엄센터로 선정

강남 ‘애플 센터’ 등 총 6개 센터

대우전자(옛 동부대우전자)는 자사의 6개 서비스 센터가 애플 고객서비스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애플 프리미엄 서비스 센터(PSP)로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애플에서는 매년 자체 평가를 통해 대표적인 서비스 환경을 구축, 고객 만족도 및 고객 충성도를 높이는데 성공한 서비스 센터를 프리미엄 서비스 센터로 선정하고 있다.

대우전자서비스는 지속적인 고객까지

혁신 노력으로 업계 최고의 고객서비스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점을 인정받아 올해 강남, 흥대, 전주, 사상, 대구, 목포센터 등 총 6개 센터가 프리미엄 서비스 센터로 선정됐다.

한편 대우전자서비스는 대우전자 제품 뿐만 아니라 애플, 일렉트로룩스, 테팔 등 글로벌 가전, IT 업체 서비스를 대행하고 있다.

/정은미 기자

기아차 “‘올 뉴 K3’ 3박 4일간 시승하세요”

1000명 선정 대규모 시승 이벤트

기아자동차가 ‘올 뉴 K3’를 체험할 수 있는 대규모 시승이벤트에 참여할 고객 1000명을 모집한다.

기아차는 지난달 27일 출시한 올 뉴 K3를 3박 4일간 자유롭게 체험할 수 있는 ‘천 명의 체험, 천 명의 선택’ 시승이벤트를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시승이벤트는 차세대 파워트레인 ‘스마트스트림’을 최초로 적용하고 동급 최고 수준의 안전·편의 사양을 장착하는

등 기존 준중형 모델을 넘어서는 상품성을 갖췄다는 자신감 아래 1000명 규모로 진행한다. 올 뉴 K3의 핵심 상품성인 연비, 스타일, 안전 3가지 주제로 5월 8일까지 총 9회차에 걸쳐 진행되며 추첨을 통해 1000명을 선정한다.

시승 참여를 원하는 고객은 (만 21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대상) 다음달 10일까지 기아차 홈페이지에서 시승을 희망하는 날짜를 선택해 응모할 수 있으며 당첨자는 개별 안내될 예정이다.

/양성운 기자



LG 트롬건조기, 호주서도 ‘최고’ 인정

LG전자가 호주에서 트롬 건조기의 뛰어난 성능과 에너지 효율을 인정받았다.

6일 LG전자에 따르면 최근 호주의 유력 월간 소비자잡지 초이스는 LG 트롬 건조기(모델명: TD-H802SJW)에 최고 점을 부여하며 ‘추천 제품’으로 선정했다.

트롬 건조기는 평가 대상이 된 총 41종의 건조기 가운데 가장 높은 평점인 84점을 받았다. 기존 1위 제품의 평점은 83점이었다.

초이스는 총 52명의 전문가가 제품을 직접 테스트하고 제품을 평가하기 때문에 신뢰도가 높다. 평가단은 트롬 건조기가 ▲탁월한 에너지 효율 ▲다양한 건조 코스 ▲낮



은 소음 ▲짧은 건조시간 등의 강점을 갖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LG전자는 업계 최고 수준의 인버터 히트펌프 기술로 이뤄낸 성과라고 자평했다. 트롬 건조기는 냉매가 순환하며 만드는 온도를 활용해 옷감 속 수분을 제거하는 히트펌프 방식으로 작동한다. 따뜻한 냉매가

건조통 내부를 데워 옷감 속 수분을 수증기로 만들면 차가운 냉매가 수증기를 물로 만들어 외부로 배출하는 식이다.

특히 모터의 구동속도를 자유자재로 조절하는 인버터 기술이 더해져 세탁물의 양이나 고객이 선택하는 건조 코스에 따라 꼭 필요한 만큼만 작동하는 것이 가능하다.

/정은미 기자 21cindium@

채용비리 수사 2R... “언제 소환되나” 떨고있는 은행CEO

검찰, 은행권 수사 다시 속도

980개 2금융권도 조사키로

‘축제(연휴·올림픽)는 끝났다’. 검찰의 은행권 채용비리 수사가 다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채용비리에 연루된 은행 최고경영자(CEO) 소환 조사를 앞둔 가운데 금융당국이 2금융권에도 칼을 빼들고 나서 금융권 전체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6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금융감독원이 고발한 KB국민·KEB하나·BANK부산·DGB대구·JB광주 등 5개 은행을 압수수색하고 채용비리에 관여한 고위급 인사 소환을 준비 중이다. 금융권의 채용비리 수사는 지난해 10월 17일 국회 정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우리은행의 특혜채용 의혹이 제기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당시 이광구 전 행장은 의혹이 제기된 지 2주 만에 사퇴의사를 밝혔으나, 지난달 검찰에 불구속기

〈은행권 채용비리 수사 관련 주요 일지〉

2017-10-17	심상정 의원(정의당), 국정감사에서 우리은행 특혜채용 의혹 제기
11월	검찰, 우리은행 채용비리 수사 착수
	관련 임원 3인 보직해임 및 이광구 우리은행장 사퇴 발표
	은행권, 금융당국에 채용시스템 자체점검 결과 보고
12월	금감원, 11개 은행 채용비리 현장검사
	이광구 우리은행장 채용비리 의혹 관련 검찰 소환조사
2018-01-26	금감원, 은행권 채용실태조사 5개 은행, 22건 비리 정황 발표
02월 01일	금감원, 5개 은행 검찰 고발
02월 06일	검찰, KB금융 지주회장 사무실 등 국민은행 본점 압수수색
02월 08일	하나은행 본점 압수수색
	부산은행 본점 압수수색
	광주은행 본사 압수수색
02월 09일	검찰, 대구은행 제2본점 및 인사 담당자 주거지 등 4곳 압수수색
02월 13일	검찰, 부산은행 본점 추가 압수수색
02월 20일	2금융권 채용비리 내부고발 유도
02월 27일	최홍식 원장, 정무위서 부정합격자 4명 중 2명 우선 퇴출 밝혀
03월 01일	BNK 박재경 사장, BNK저축은행 대표이사 구속영장 청구

소됐다. 최근엔 BNK금융 사장이 관련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등 수사가 급속도로 전개되는 추세다. 이에 조만간 은행권 CEO들이 줄소환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검찰은 먼저 지난달 28일 박재경 BNK금융지주 사장과 김동주 BNK저축은행

대표이사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2015년 신입사원 채용 때 전 국회의원 자녀와 전 부산은행장 외손녀를 부당하게 채용해 부산은행의 정상적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KB금융도 어수선하다. 검찰은 지난달 6일 KB국민은행 본점 등을 압수수색했고, 지난 5일엔 인사담당자를 구속했다. 박인규 DGB금융그룹 회장 겸 대구은행장은 인사청탁 혐의를 받고 있는 동시에 대구은행에서도 채용 비리 의혹이 제기돼 검찰 소환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박 행장은 지난해 7월 금감원 하반기 민원 처리 전문직원 채용에 자사 출신 직원이 합격할 수 있도록 이 모 전 부원장보(55·구속기소)에게 청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대구은행은 2016년 진행한 신입사원 채용에서 은행 임직원과 관련된 지원자 3명이 간이 면접에서 최고 등급을 받아 최종 합격한 것과 관련해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검찰은 지난 9일 대구은행 제2본점 채용담당 부서와 박 행장의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또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서 인사청탁 문제가 불거졌던 하나금융지주에 대한 재조사도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금융위는 2018년 업무계획에서 “인사비리에 연루된 CEO에 대해선 해임을 권고하겠다”며 엄중 처벌 계획을 밝힌 만큼 검찰의 CEO 소환에 따른 금융권의 긴장이 커지는 모양새다. 여기에 당국이 2금융권도 조사에 나설 것으로 알려져 또 한 번의 금융권 채용비리 파문이 예상된다. 2금융권에 속하는 금융회사는 980여개에 달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권의 채용비리 사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면서 검찰의 수사도 더 촘촘해지고 있는 것 같다”며 “CEO들을 소환조사하고 2금융권까지 현장 조사를 하다 보면 또 다른 의혹이 나오면서 파문이 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채신화 기자 csh9101@metroseoul.co.kr

하나금융지주, 사외이사 후보 7명 확정

신임 5명·재선임 2명 후보 추천 이달 정기총회 최종 선임키로

하나금융지주 이사회는 6일 회의를 개최하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후보 자격 검증 등을 통해 2018년 주주총회에 추천할 사외이사 후보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홍진, 박시환, 백태승, 양동훈, 허윤 총 5명을 신임 사외이사 후보로, 윤성복, 박원구 등 2명은 재선임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했다. 윤종남, 송기진, 양원근, 김인배 이사는 퇴임하며, 차은영 이사는 임기가 2019년 주주총회까지로 남아 있다. KEB하나은행 사외이사를 역임한 허윤 이사(임기 1년)를 제외한 4명의 신임 사외이사의 임기는 2년이며 1년 단위로 중임할 수 있으며 재선임 사외이사 후보의 임기는 1년이다.

이날 하나금융지주 이사회는 “김병호 부회장(경영관리 부문장)과 함영주 행장(경영지원 부문장)이 지주사 사내이사로서 리스크관리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이 리스크 관리기능의 독립성 약화 및 이해상충의 우려가 있어 이들 두 사람을 리스크관리위원회에서 제외했다”며 “이에 따라 사내이사로서의 역할이 축소돼 사내이사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김홍진 후보는 재경부 경제정책국 과장, 감사담당관,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장, 한국예탁결제원 경영지원본부장을 역임한 경제분야 전문가이다. 박시환 후보는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전임 석좌 교수로 재직 중이며 인천지방법원 및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대법원 대법관을 거쳐 법리와 실무에 정통한 법률 전문가로 평가 받고 있다. 백태승 후보는 전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한국은행을 거쳐 연세대 법무대학원 원장 겸 법과대학 학장, 한국인터넷

법학회장을 역임하는 등 금융과 정보통신 기술 관련 법 제도와 실무에 정통한 법률 전문가이다. 양동훈 후보는 동국대 회계학 교수와 한국회계학회 회장을 겸직 중이며 한국은행을 거쳐 싱가포르 난양기술대학교 선임연구원, 동국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장을 역임한 재무회계 분야 전문가이다. 마지막으로 허윤 후보는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및 2015년부터 KEB하나은행 사외이사직을 수행 중이며 금융위 금융발전심의위원회, 서강대 국제대학원장, 한국국제통상학회장을 거친 금융·경제분야 전문가이다. 하나금융지주 이사회는 이번 사외이사 후보 추천 과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달 2일 이사회를 열어 김정태 회장을 사추위원에서 제외한 바 있다. 이날 추천된 하나금융지주 사외이사 후보는 3월 정기 주주총회 의결을 거쳐 최종 선임된다. /김문호 기자 kmh@



한편 이날 KEB하나은행과 한스코퍼레이션 임직원들이 서울 용산 드래곤시티호텔에서 한스코퍼레이션 모로코 현지 공장 신축자금 조달을 위한 신디케이트론 딜 클로징 세레모니를 개최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KEB하나은행 박인수 경인영업본부장(사진 왼쪽부터), 배기주 IB사업단장, 박지환 기업영업그룹장, 한스코퍼레이션(주) 승현창 회장, 이석주 사장, 이승현 전무.

KEB하나銀, 모로코 신디케이트론 주선

공장 신축자금 3000만 유로 지원 KEB하나은행은 한스코퍼레이션 모로코 현지 공장 신축자금 총 1억2000만 유로(한화 약 1600억원)의 조달을 위한 신디케이트론 단독주선에 성공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계약은 KEB하나은행이 모로코 현지법인 앞 국내 시중은행 최초로 주선에 성공한 7년 만기 중장기 대출이다. 중국건설은행, 중국은행을 포함한 국내외 6개 금융기관이 대주단으로 참여하며 주간사인 KEB하나은행도 3000만 유로를 지원한다. 이번 거래는 IB역량 확대를 위해 국내·외 시장 진출을 지속 타진해온 KEB하나은행의 노력과 국내 1위, 세계 5위의 자동차

휠 생산능력을 보유한 한스코퍼레이션의 역량을 바탕으로 성사됐다. KEB하나은행은 우량 중견기업인 한스코퍼레이션의 해외시설투자 자금조달 수요를 조기 파악하고 철저한 사업성 평가를 기반으로 타 금융기관과 함께 모로코 정부 관계자 면담 및 모로코 법인 현지실사를 추진했다. KEB하나은행이 제안한 안정적 대출구조와 한스코퍼레이션의 기술력, 모로코 정부의 적극 협조를 바탕으로 현지실사에 참여한 모든 금융기관이 신디케이트론 대주단 참여를 결정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스코퍼레이션은 세계 3위 자동차 휠 생산업체로 도약할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김문호 기자

“암호화폐로 숙박업 비용 결제하세요” | 빗썸-위드이노베이션, 업무 제휴 다종 암호화폐 결제 지원 첫 사례

약 200만 명이 달하는 월간 순 이용자와 200만 건이 넘는 사용자 숙박 리뷰를 자랑한다. 앞으로 어기어때에 등록된 호텔, 리조트, 펜션, 게스트하우스, 모텔뿐 아니라 캠핑, 글램핑을 비롯해 한옥까지 다양한 종류의 숙소 비용을 간편하게 암호화폐로 결제할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암호화폐 결제는 계속 확산되는 추세다. 코인마켓에 따르면 현재 비트코인 결제 가능 가맹점 수는 1만여 곳이 넘는다. 온라인 최대 여행 사이트인 익스피디아에서는 호텔 예약 결제 시 비트코인을 사용할 수 있다. /안상미 기자 smahn1@

일본의 대형 가전제품 매장인 빅카메라는 일본 전역 59개 점포에서 비트코인 결제를 지원한다. 스위스는 부동산이나 세금 납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비트코인 결제를 시범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미국, 캐나다, 영국 등에는 수백 대의 비트코인 ATM 기계가 설치되어 있다. 빗썸 관계자는 “국내 최대 숙박업 어기어때와의 제휴를 통해 암호화폐 활용처 확산의 세계적 흐름에 우리나라도 본격적으로 동참하게 됐다”며 “국내에서도 간편하고 안전한 결제수단인 암호화폐의 활용이 보다 확산될 수 있도록 다양한 기업들과 계속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채신화 기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우리은행 분당중앙금융센터 3층에 ‘우리어린이집 새솔집’을 개원했다고 6일 밝혔다. 새솔집은 서울시 상암동 행복집, 성수동 사랑집, 화현동 도담집에 이은 네 번째 직장어린이집으로, 약 327제곱미터 면적에

경기 서현동에 ‘우리어린이집 새솔집’ 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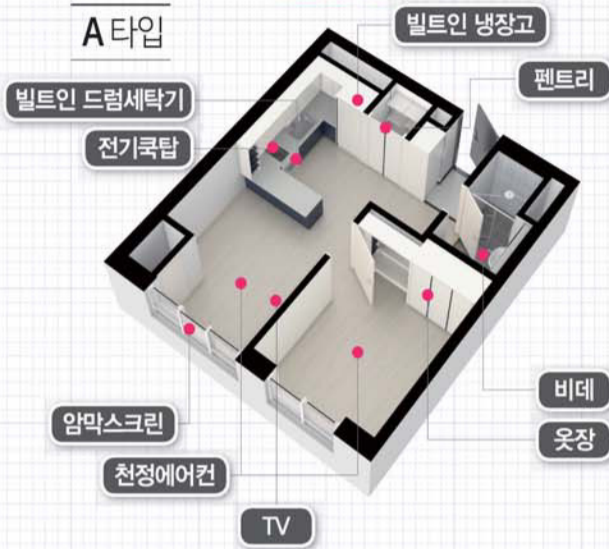
우리은행, 일·가정 양립 정착 도모 우리은행은 지난 5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우리은행 분당중앙금융센터 3층에 ‘우리어린이집 새솔집’을 개원했다고 6일 밝혔다. 새솔집은 서울시 상암동 행복집, 성수동 사랑집, 화현동 도담집에 이은 네 번째 직장어린이집으로, 약 327제곱미터 면적에

만 1세에서 3세 영유아 39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다. 직장어린이집 위탁전문업체인 모아맘이 위탁 운영하며, 새솔집 개원으로 우리어린이집은 약 160명의 영유아를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게 됐다. 우리은행은 새솔집이 지방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보육문제를 해결해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기업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채신화 기자

마음 같아선 한 10개쯤 사두고 싶은 아파트형 오피스텔!!



살고 싶은 제주 연동



* 상기 이미지는 A타입 기준입니다. 그외 타입 및 가구는 별도 도면과 사양을 방문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이미지는 인화나 과정이나 실제 시공시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반드시 모델하우스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홍보물의 제작과정상 오missions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위세대 평면도 및 이미지들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일의로 가구 등을 배치하여 시뮬레이션한 것으로 계약시 포함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실제 시공시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월세받고 싶은 제주 연동

한리일보

2017년 11월 17일

**제주 소형아파트가격 폭등...
분양가 1년새 31.5% ↑**

60㎡ 이하 ㎡당 평균분양가 538만원...서울 다음 비싸
61~85㎡ 평균분양가 315만원보다 200만원 이상 높아

임대관리 걱정없이 임대수익지금 OK

LL (주) 라이프테크
[TECH] (임대관리 위탁 계약 체결시)

* 한국자산신용은 임대수익 지급과는 무관함

h&small **홈&쇼핑**

2018년 3월 8일 저녁 12:50 방송진행

※ 홈쇼핑 상담예약 고객에 한해 상품권 증정(모델하우스방문필수)

www.jejutruel.com

제주 연동 일성 트루엘 아파트형 오피스텔

일성건설(주)



서울모델하우스 방문시
신세계 상품권 1만원 증정!
(본 신문광고 지참고객 1팀 1매에 한함)



다 시 없 을
투 자 기 회
매 력 적 인
특 별 혜 택!

01 1가구 2주택
해당 없음

02 중도금 60%
전액 무이자

03 초기 투자금
2,000만원대
(실제 투자금 기준,
중도금 60% 대출시)

04 분양권 전매
제한 無

05 제주도 차량 등록제
전격시행
1실 1주차
확보

제주의 중심입지 제주공항과 관공서, 병원, 대학교 및 기업 등 행정·업무중심지
완벽한 생활환경 이마트, 롯데마트, 바오젠거리, 롯데시네마 등 편의시설 인접
편리한 교통환경 도령로, 일주서로, 사무공원 사거리 등 사통팔달 교통의 요지
풍부한 임대수요 제주 내 1~2인 가구 최다 거주지, 인근 17,000여명 이상의 배후수요

문의 (02) **6022-1669**

시행 **KAIT** 한국자산신탁

시공 **일성건설(주)**

위탁사 **아시아산업(주)**

서울총보관 | 서울시강남구 논현동 164-4 제일은행 2층



* 한국자산신탁부동산개발업 등록번호 : 070012 · 사업지 위치 : 제주시 연동 260-30번지의 2필지 · 건축연면적 : 16,337.868㎡ · 총호실 수 : 208실
* 준공/입주예정일 : 2019년 5월 예정, 분양신고 제주시청2016-건축과-분양신고-9호
* 상기 CG 및 내용, 문구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 또는 표기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습니다.
* 상기 교통계획 및 개발계획 등은 지자체, 사업체의 사업이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이는 시행사 및 시공사와는 무관합니다.

• 입금계좌 : 신한은행 140-011-416787 • 예금주 : 한국자산신탁
• 동호수 지정 청약금 100만원 ※ 미 계약시 청약금 전액 환불가능

증권 다이제스트

KB증권
9일까지 ELS 8종 등
총 10종의 상품 공모

KB증권은 9일까지 3개 기초자산(KO SPI200·HSCEI·Eurostoxx50)으로 연 6.6%(세전)의 수익을 제공하는 KB able ELS 427호(3년만기, 6개월 단위 조기상환)를 포함한 주기연계증권(ELS) 8종, 파생결합증권(DLS) 2종 등 총 10종의 상품을 공모한다.

Nikkei225지수와 홍콩항셩중국기업지수(HSCEI), 유로스탁스50(Eurostoxx 50)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KB able ELS 422호(3인덱스 슈퍼리자드 울트라 스탱다온형)는 노 낙인(No Knock-In Barrier) 구조로 3년 만기에 6개월 단위로 조기상환 기회를 주며, 최고 연 4.4%(세전, 리자드 조기상환 시 연 8.8%)의 수익을 제공한다. /김문호 기자



삼성증권
‘해외주식 아카데미’ 진행

삼성증권은 늘어나는 해외주식 투자자들을 위해 해외주식 투자 방법과 전략을 소개하는 ‘해외주식 아카데미’를 3월 말까지 진행한다. 해외주식 환전 및 매매방법부터 주요 글로벌 시장의 상황, 투자유망 종목 등 해외주식 관련 정보를 총망라해, 삼성증권 해외주식팀 전문가가 강사로 나서 70분에 걸쳐 강의를 진행한다.

삼성증권 ‘해외주식 아카데미’는 8일 테헤란로 삼성증권 스마트사업부 세미나실, 15일 남부순환로 삼성증권 강남금융센터, 29일 서초대로 삼성증권 삼성타운 금융센터 개최된다. 참여방법은 삼성증권 홈페이지 및 팝(POP) HTS, 모바일 앱 ‘엠팝(mPOP)’을 통해 원하는 날짜 및 지역을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김문호 기자



SK증권
ELS·ELB 각 1종 공모

SK증권은 오는 9일까지 주기연계증권(ELS) 1종 및 주기연계파생결합사채(ELB) 1종을 공모한다.

제2397회 ELS는 홍콩항셩(HSCEI)지수 및 유로스탁스50(EUROSTOXX 50)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3년5개월 만기 조기상환형 원금비보장 상품이다. 두 기초자산이 매 6개월 조기상환평가일마다 최초기준가격의 90% (6개월, 12개월, 18개월), 85% (24개월, 30개월), 80% (36개월) 이상이면 연 6.40% 수익을 지급한다. 최소가입금액은 100만원이고 100만원 단위로 청약이 가능하다. /손영지 기자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 내정

IB부문 독보적 존재감, 글로벌금융 최적임자

조직 전반 동기부여 효과 기대
22일 열리는 주총서 임명 확정

NH투자증권의 차기 사장에 정영채 IB(투자은행)사업부 대표(부사장)가 내정됐다.

NH투자증권은 6일 열린 이사회에서 정 대표를 차기 대표이사 사장 후보로 추천했다고 밝혔다.

정영채 신임대표 후보는 1964년생으로 대우증권 기획본부장과 IB 담당 임원을 거쳐 2005년 NH투자증권(옛 우리투자증권)으로 자리를 옮긴 후 14년째 IB사업부 대표를 맡아 왔다. 다소 보수적인 농협금융 내에서 최연소 최고경영자(CEO)로 발탁된 정 대표는 내부 조직원들의 신망이 두터워 조직 전반의 동기부여 효과가 기대된다.

정 신임 대표는 NH투자증권의 IB부문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 내정자.

을 국내 자본시장의 탑티어(top-tier)로 키워 온 공로를 인정받고 있다. NH투자증권은 기업공개(IPO), 유상증자, 회사채 발행주관 등 기업금융(IB) 전 분야에서

최상위권에 위치해 있다. 기업 구조조정과 인수합병(M&A) 자문에서도 독보적인 지위를 보유하고 있다는 평가다.

NH투자증권 임추위는 “증권업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NH투자증권을 한국 자본시장 발전을 리드할 글로벌 IB로 키워낼 인물로 판단해 후보로 추천했다”고 밝혔다. 특히, 증권업의 사업모델이 과거 주식 브로커리지(중개) 중심에서 자본 활용형 IB 비즈니스로 무게 중심이 옮겨 가는 현 상황을 리드해 나갈 최적의 인물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초대형 금융투자회사의 출현 및 혁신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자로서의 역할이 강조되는 현재의 자본시장에서, 기업금융 최고 전문가를 대표이사로 선임한 NH투자증권의 행보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정 대표는 14년째 NH투자증권의 성장을 이끌어온 일원으로서 수 차례 합병으로 인해 섞여 있는 여러 기업문화를 효과적으로 통합해 낼 것으로 예상된다.

NH투자증권은 오는 22일 열리는 주주총회를 거쳐 사장 임명 절차를 마무리한다. /김문호 기자 kmh@metroseoul.co.kr

“화장품 부문 내실 다져 성장 가속화”

애경산업 IPO간담회

화장품 회사로 변모 준비 마무리
추정 부문매출 2014년비 10배 ↑

올 상반기 코스피 ‘대어’로 꼽히는 애경산업이 기업공개(IPO)를 통해 화장품 회사로 변모할 준비를 마쳤다. 다만 ‘견미리 팩트’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높고, 가습기살균제 제품의 위해성 판단 이슈가 남아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애경산업은 6일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7일부터 수요예측을 거쳐 13, 14일 청약을 실시하고 이달 말 코스피에 상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985년 4월 설립된 애경산업은 애경그룹의 생활용품 사업부문을 넘겨받은 현재 국내 생활용품 시장 점유율 2위 회사로 성장했다. 국내 최초 주방세제 ‘트리오’, ‘2080’ 치약, ‘캐라시스’ 삼푸 등 생활용품 브랜드의 안정적 기



6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애경산업 IPO(기업공개) 기자간담회에서 송기복 애경 경영지원부문 최고재무책임자(CFO)가 발표하고 있다. /애경산업

반을 바탕으로 화장품 부문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

아직 4분기 실적이 발표되지 않았지만 지난 해 3분기까지 매출액(4406억원)을 감안하면 2016년 매출액(5068억원)을 뛰어넘는 성과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영업이익률 역시 2016년 7.9%에서 지난해 3분기 기준 9.5%를 달성해 수익성 개선도 눈에 띈다.

특히 하나금융투자가 추천한 애경산업의 2017년 화장품 부문 매출은 약

2730억원으로 2014년(256억원) 대비 10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송기복 애경 경영지원부문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올해 2분기에는 에스테틱 브랜드인 ‘더마브랜드(가칭)’와 화장품 브랜드 ‘FFLOW’를 런칭할 예정”이라며 화장품 부문 내실 다지기에 주력할 계획을 밝혔다.

다만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견미리 팩트’에 대한 매출 의존도를 지적한다. 박종대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화장품 부문에서 AGE20’s 매출 비중이 지난 해 기준 90% 가까이 된다”면서 “한 개의 브랜드가 계속 30% 이상 고신장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신규 라인업의 의미있는 매출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애경산업은 본격적으로 해외진출에 나서고 있다. 지난해 9월 중국 상하이에 현지법인 설립을 설립해 현지 판매 조직 및 채널을 확보했다.

/손영지 기자 sonumj301@

하이트진로

회사채 1800억원 발행
5년연속 오버부킹 성공

하이트진로가 회사채 1800억원을 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발행하는 회사채는 3년만기로 금리는 개별 민평금리 -5bp이다.

하이트진로는 공모채 1300억원어치 발행을 앞두고 지난 5일 수요예측을 실시했다. 수요예측 결과 발행 목표 1300억원의 두 배에 달하는 총 2540억원의 자금이 몰리는 흥행을 기록했다.

하이트진로는 공모채 수요예측 시 민평금리에서 -15bp~15bp로 금리밴드를 설정했다. 수요예측 흥행에 성공한 하이트진로는 내부논의를 거쳐 총 1800억원의 회사채를 발행하기로 했다.

하이트진로의 회사채 공모는 수요예측이 도입된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주목받아왔다. 2014년부터 매년 모두 오버부킹이 이루어지며 흥행에 성공하고 있다. 특히 투자수요가 급감해 수요미달이 속출했던 2016~2017년에도 연이은 오버부킹에 성공하며 하이트진로만의 안정성이 부각됐다. /박민홍 기자 parku7854@

미래에셋대우 글로벌주식본부, 해외자산 3배로

1년만에 해외주식자산 4조원 돌파
양질의 콘텐츠·차별화된 인프라 효과

미래에셋대우의 글로벌주식본부가 고객의 자산을 늘리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글로벌주식본부는 국내외를 모두 아우르는 글로벌 브로커리지(주식 중개) 영업지원, 서비스 조직으로 고객 연령별, 목적별 투자 니즈를 충족시키고 있다는 평가다.

덕분에 지난 1월 29일 미래에셋대우의 해외주식자산은 처음으로 4조원을 돌파했다. 이는 2017년 1월 초 1조 1534억원 대비 3배가 넘게 증가한 수치다. 미래에셋대우의 해외주식자산이 급증한 데는



미래에셋대우 2기 글로벌 주식 전문가 양성과정.

양질의 해외주식투자 콘텐츠 제공, 차별화된 서비스를 위한 인프라 구축, 글로벌 브로커리지(GBK) 전문인력 육성 등이 주요했다. 미래에셋대우는 지난해부터 글로벌 투자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100시간 이상의

집합교육과 선진 해외기업 탐방 등을 통해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다.

분기마다 개최되는 글로벌주식포럼을 통해 영업직원들에게 글로벌 시장과 분기별 추천종목 정보를 제공하는 등 직원 역량 강화에도 집중하고 있다.

미래에셋대우 글로벌주식본부에서는 ‘글로벌 그레이트 컴퍼니즈(Global Great Companies) 5선’, ‘중국 대표기업 소개 30선’ 등의 글로벌 리서치 자료를 통해 직원과 고객들에게 추천종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작년 미래에셋대우가 추천한 해외주식 포트폴리오의 평균 수익률은 57.8%를 기록했으며 추천종목 43개 가운데 7개 종목이 2배 이상 상승하는 성과를 보였다.

제도적인 측면에서도 고객들이 해외주식투자를 보다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국내주식을 매도한 당일에 환전을 하지 않고 해외주식을 매수 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증시 온라인 거래 시행과 국내 최초 브라질 주식 중개 등 차별화된 서비스 또한 제공하고 있다. /김문호 기자

252분의 회담, 남도 북도 “만족할 만”

北·美 대화 훈풍... 文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가시화

대북특사단
비핵화-남북 정상회담 등 논의

특사단, 김정은과 접견 후 만찬
1박2일간의 일정 마치고 귀환

문재인 대통령이 구상했던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이 점점 가시화되고 있다.

남과 북 정상이 만나 한반도의 미래를 논의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고, 소원했던 북한과 미국간의 대화에도 훈풍이 불고 있다.

북한의 비핵화를 견인할 수 있는 토대도 점점 단단해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들고 지난 5일 방북했던 대북특별사절대표단이 1박2일의 일정을 마치고 6일 오후 6시께 남측으로 귀환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특사단 대표로 서훈 국정원장, 천해성 통일부 차관, 김상균 국정원 2차장,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으로 구성된 특사단을 북에 파견했다.

형식적으로 평창동계올림픽에 김정은



북한을 방문 중인 정의용 수석 대북특사 등 특사단이 지난 5일 평양에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수석특사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김정은 위원장, 서훈 국정원장, 천해성 통일부 차관, 김상균 국정원 2차장. /연합뉴스

북한 국무위원장이 파견한 김여정 특사 방남에 대한 답방 성격이 짙었다. 하지만 이번 문 대통령의 특사단 파견은 당사자인 남북한뿐만 아니라 미국 등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4강과 북한과의 얽히고 설켜진 실타래를 푸는 열쇠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어느 때보다 무게감이 상당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육군사관학교 졸업식에 참석, 축사를 하며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북한과 대화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핵에 대비한 실효성 있는 대

응능력 구축도 함께 주문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출범 당시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및 평화체제 구축’을 국정목표의 하나로 내세웠다.

남북대화와 교류협력 등 남북관계 차원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고 궁극적으로 북한의 완전한 핵폐기를 국제사회와 함께 유도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당근과 채찍’, 즉 대화와 제재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는 의지를 수 차례 밝힌 바 있다.

대북 특사단은 방북 첫 날부터 분위기가 좋았다.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해선 리현 통일전선부 실장이 대표단이나 탑승한 비행기 기내로 들어와 영접했다. 공항에선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등이 이들을 맞이했다.

당초 방북 첫날 저녁, 또는 이튿날 오전으로 관측됐던 김정은 위원장과의 실제 만남은 첫 날 바로 진행됐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대북 특사단 5명은 5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접견하고

이어 만찬까지 진행했다”면서 “접견과 만찬에 걸린 시간은 저녁 6시부터 10시12분까지”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저녁식사까지 하며 김 위원장과 함께 있었던 ‘4시간 12분’이 이번 특사단 방북일정에서 ‘핵’인 셈이다.

접견과 만찬까지 이어진 조선노동당 건물에서 정의용 실장과 악수하는 김 위원장의 왼손에는 청와대를 상징하는 봉황 마크가 새겨진 흰색 서류 모양의 물건이 들려있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지난번 김여정 특사가 방남하면서 김 위원장의 친서를 문 대통령에게 전달한 데 이어 이번엔 대북 특사단이 문 대통령의 친서를 김 위원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관측된다. 김 위원장은 앞서 동생 김여정 특사의 입을 빌어 문 대통령과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싶다는 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

이날 귀환한 정 실장 등 특사단 일행은 곧바로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에게 방북 내용을 상세히 보고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안희정 쇼크’ 정치권도 미투 확산... “터질게 터진 것” 폭로 이어질 듯

정무비서 8개월간 성폭행 4차례
민주당, 안 지사 제명·출당 결정

사회 전반으로 퍼지고 있는 ‘미투(me too, 나도 당했다) 운동’이 정치권으로도 확산되면서 여야가 모두 긴장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의 유력 차기 대권주자로 꼽히던 안희정 충남도 지사로부터 8개월여간 4차례의 성폭행을 당했다는 폭로가 나오면서 정치권에 대한 미투 운동이 본격화될 징조를 보이고 있다.

안 지사의 정무비서인 김지은씨는 jtbc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혔으며, 이에 따라 민주당은 긴급최고회의를 통해 안 지사를 제명·출당시키기로 결정했다.

또한 민주당은 6일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비공개 간담회 등을 통해 수습 방안을 논의하는데 집중했다.

안 지사는 폭로 이후 이날 새벽 자신의



안희정 충남지사(오른쪽)가 5일 오전 도청 문예회관에서 직원과의 대화 중 성범죄 피해자의 ‘미투’(#Me too) 운동을 장려하고 있다. 이날 오후 안 지사의 정무비서 김지은(왼쪽)씨가 JTBC뉴스룸에 출연해 안 지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연합뉴스

SNS를 통해 피해자와 국민에 사과하며 충남도지사직 사퇴와 정치 중단을 밝혔다.

이러한 안 지사의 성폭행 의혹에 대해 여야는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큰 충격을 받으신 국민 여러분께 거듭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민주당 대표로서 엄마 된 심정으로 단단한 각오를 갖고 그릇된 성문화를 바꿔 내겠다”고 밝혔다.

이어 “성폭력범죄 신고상담센터를 설치

하고 전담 인력을 두어 국회의원, 당직자, 보좌진의 성추행 및 성희롱에 대한 ‘미투’가 있을 경우 철저히 조사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겠다”면서 “국회의 독립기구인 인권센터를 설립하고 외부 전문가를 채용해 성폭력 및 인권 전반에 대한 상담과 교육, 예방 업무를 전담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자유한국당은 여권과 진보 진영으로까지 비판을 이어갔다.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결과 속이 다른 민주당과 좌파진영의 이중성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라며 “좌파진영이 집단 최면에 빠져 얼마나 부도덕한 성도착증세를 가졌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자신의 비서까지 성폭행하는 주자를 내세워 30년이나 넘게 집권하겠다는 망상을 가졌던 것인가”라며 “민주당이 ‘성폭력당’으로부터 벗어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충남지사 후보를 공천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렇듯 여야가 이번 의혹을 두고 비판을 하고 있지만, ‘미투’와 관련해 어느 쪽도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는 말이 정치권에 퍼지고 있다.

정치권의 남성중심 문화와 권력이 모이는 집단 내에서의 명확한 상하관계 같은 문화 속에서 그동안 이러한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지만 번번이 흐지부지되거나 피해자만 고립되는 양상을 보여왔다는 설명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이날 당

젠더폭력대책 태스크포스(TF)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고위직급은 남자가 많고 낮은 직급은 여성이 많은 데다 고용이 불안정한 국회는 성추행, 성폭행이 일어나기 쉬운 조건”이라며 “두고 봐야 알겠지만, 더 나오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

실제로 한 국회의원의 5급 비서관은 안 지사의 성폭행 의혹 폭로 이후 지난 2012년부터 3년간 근무하면서 일어났던 성폭력 문제를 폭로했다.

국회 직원 페이스북 페이지인 ‘여의도 옆 대나무숲’에서도 “터질게 터진 것”이라는 분위기가 감지되며, 이와 관련한 익명의 글들이 이어지고 있다.

때문에 안 지사의 성폭행 의혹 폭로 이후 국민여론도 모아지고 있는 만큼 정치권을 향한 미투가 줄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게다가 지방선거가 3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만큼 상대간 폭로가 있을 가능성도 높아 정치권에 ‘태풍’이 몰아칠 것으로 보인다. /이창원 기자 mediaeco@

6·13지방선거, 야당의 필승 전략은

바른미래
개헌·선거제도·안보 등 정책 마련
자유한국
여성·청년진입 통해 개혁의지 부각

6·13지방선거를 99일 앞둔 6일 야당이 필승 전략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고공행진하고 있어 야당 입장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선거가

예상돼 각 정당은 정책, 연대 등 다양한 각도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제2야당인 바른미래당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연찬회를 갖고 개헌 및 선거제도, 안보정책 등 당 입장을 정리하며 정책 마련에 나섰다.

이 자리에서 바른미래당은 개헌 및 선거제도, 지방선거 등에 대한 자유토론을 가졌으며, 이태규 사무총장은 지방선거 전략 및 대책에 대한 발제를 진행했다.

개헌과 관련해서는 ‘화두’인 권력구조·정부형태 등이, 지방선거 관련해서는 전략적 목표·구도 등이 집중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바른미래당이 핵심 이슈로 삼고 있는 외교·안보 문제에 대해서도 이 자리에서 논의됐으며,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된 당의 입장은 7일 예정된 문재인 대통령과의 청와대 오찬 회동에서 전달될 것으로 보인다.

‘인물난’을 겪고 있는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도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1차 당 전국여성대회를 열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 정비에 나섰다.

이 자리에는 홍준표 대표, 김성태 원내대표, 함진규 정책위의장 등 당 지도부와 1000여명의 인사가 참석해 지방선거 출마 여성 예비 후보들을 격려했다.

이같은 자유한국당의 행보는 당 지지율이 쪼뻛 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여성, 청년 등의 진입을 통한 당 개혁의지를 부각시키려는 행보로 읽히고 있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전날 ‘지방선거 공

천 50% 여성·청년 정치 신인 개방, 20% 경선 가산점 부여’를 밝혔다.

홍문표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지방 선거 공천의 50%를 여성과 청년 정치 신인에게 개방하고자 여성·청년 중 처음 출마하는 신인에게 20%의 경선 가산점을 부여할 것”이라면서 “여성과 청년, 정치신인의 진입 장벽을 낮추는 게 이번 공천의 기준”이라고 말했다.

또한 다문화·장애인 등 소외계층과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65세 이상 노인의 정치권 진입 방안 등도 제시했다.

/이창원 기자

해외 상춘객 잡아라... LCC, 봄철 항공권 할인 大戰

진에어

홍콩 왕복 20만8900원부터

티웨이항공

후쿠오카 편도 4만7300원부터

에어서울

보라카이 편도 12만800원부터



진에어(왼쪽)와 티웨이 항공기.



/각사

국내 저비용항공사(LCC)들이 봄철 여행을 준비하는 여행객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5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티웨이항공·에어부산·에어서울 등이 다양한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항공사들은 인기 중·단거리 노선을 위주로 특가 항공권을 제공하는 것에 더해 할인 적용 노선을 전 노선으로 확대해 보다 많은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진에어는 오는 19일까지 홍콩관광청과 함께 홍콩 가족 프로모션 '스쿨 오브 홍콩'을 진행한다. '스쿨 오브 홍콩'은 홍콩으로 가족여행을 계획 중인 고객들을 위해 마련된 프로모션이다. 특가 항공권과 홍콩의 대표적인 여행상품 이용권 등의 혜택을 만

나볼 수 있다. 탑승 기간은 3월 25일부터 7월 20일 사이 운항하는 항공편을 대상으로 하며, 왕복 총액 최저 운임은 20만8900원부터다. 항공권 예매는 3월 19일까지 진에어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을 통해 하면 된다.

티웨이항공은 3월 9일까지 봄맞이 특가 이벤트를 진행한다. 대상 노선은 인천과 대구·제주·부산에서 출발하는 국제선이다. 탑승기간은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한 달 간이며 예약 상황에 따라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편도 총액운임(유류할증료와 공항시설

이용료 포함)은 ▲후쿠오카 4만7300원 ▲오사카 5만6200원 ▲도쿄(나리타) 5만8400원 ▲마카오 7만700원 ▲홍콩 8만2700원 ▲가오슝 9만3400원 ▲방콕 14만7300원부터다.

에어부산은 오는 14일까지 부산발 홍콩·마카오·가오슝 노선과 부산·대구발 타이베이 노선 대상 특가 항공권 이벤트를 진행한다. 홍콩·마카오 노선과 타이베이·가오슝 노선은 한 번의 출입국으로 여러 도시를 관광할 수 있어 가성비 좋은 '일석이조' 여행지로 최근 국내 자유여행객 사이에서 높은 인기를 끌고 있다.

특가 항공권은 유류할증료와 공항세를 합한 편도 총액 기준 10만 원부터 구매 가능하다. 탑승 기간은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다.

에어서울은 동경·오사카·홍콩·보라카이(칼리보)·괌 등 에어서울이 운항하는 전 노선을 대상으로 얼리버드 특가를 진행한다. 탑승 기간은 벚꽃 개화 시즌이 포함된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다. 항공 운임은 편도 총액 기준 일본 ▲동경 10만1500원 ▲오사카 9만8500원 ▲시즈오카·다카마쓰·히로시마 11만500원 ▲요나고·도야마 11만5500원 ▲나가사키·구마모토 10만

500원이다. 동남아·괌 노선은 ▲홍콩 9만3700원 ▲보라카이 12만800원 ▲코타키나발루 13만800원 ▲괌 14만7200원 ▲씨엠립 17만800원부터다.

이스타항공은 오는 6, 7월 출발하는 얼리버드 항공권을 7월까지 판매한다. 6, 7월 이벤트 진행 노선은 국내선 4개 노선 및 국제선 일본 8개노선, 동남아 7개 노선, 중국 2개 노선으로 총 21개 노선이며 편도총액기준 최저가 ▲국내선 1만7900원 ▲일본노선 6만8900원 ▲동남아노선 9만7900원 ▲중국노선 10만7900원부터 구매할 수 있다.

이번 얼리버드 이벤트를 활용하면 출발 3~4개월 전인 6월과 7월 항공권을 실용적인 가격으로 미리 구매할 수 있어 이른 여름휴가를 계획하고 있는 고객들에게 유용할 전망이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유류할증료 상승으로 여행객들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며 "얼리버드 이벤트로 항공권 부담은 물론 선택의 폭이 넓어진 만큼 많은 고객들이 부담없이 여행을 즐길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주 52시간 근로기업’ 인건비 지원

고용부,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 확대

정부가 '주당 근로시간 52시간' 안착을 위해 기업의 신규 채용 인건비와 노동자 임금 감소분을 지원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6일 주당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내용의 노동시간 단축 입법이 뿌리를 내리도록 신규 채용 인건비와 노동자 임금 감소분 보전 대책을 관계부처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고용부는 노동시간 단축이 일자리 나누기와 청년 일자리 창출과 연계될 방안도 강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재 시행 중인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사업은 증가 노동자 수 1명당 1년에 한해 월 최대 80만 원, 재직자 1인당 월 최대 40만 원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올해 213억 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고용부는 또 일터혁신 컨설팅, 노동시간 단축 도입 매뉴얼 제작·배포, 근로조건 자율개선 사업을 통해 사업장의 자율 노동시간 단축을 유도해나갈 방침이다.

고용부는 이와 함께 기업의 구인난 해소와 중소기업 인력매칭 시스템 개선 방안 마련에도 주력하기로 했다.

/세종=최신용 기자

“질적성장 나선 시진핑 2기 우리기업도 차별화 나서야”

전경련 ‘중 양회 이슈점검 좌담회’

‘고속성장’에서 ‘질적성장’으로 목표를 바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집권 2기를 맞아 우리 기업의 중국에 대한 전략도 ‘메이드 인 차이나(Made in China)’에서 ‘메이드 포 차이나(Made for China)’로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6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2018 중국 양회 이슈 점검 좌담회'를 개최하고, 시진핑 2기의 경제정책 방향과 우리의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발제에 나선 양평섭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중국은 경제성장률이 6%대로 둔화되며 고속성장 대신 공급 구조개혁 통한 질적성장으로 목표를 전환했다”며 시진핑 1기와 2기 경제운영 방향이 달라졌음을 강조했다.

양 위원은 ‘공급 구조개혁’을 대표적인 정책으로 과잉공급 해소와 부채축소 등

고, 이를 위해 ▲중소기업 퇴직 ▲신성장 동력 확보 ▲조세 감면 등 기업 비용절감에 중점을 둘 것으로 전망했다.

토론자로 나선 조철 산업연구원 박사는 “중국은 개혁을 통해 산업 비효율을 제거하고 신산업 발전을 촉진하는 등 저임금·고오염 산업구조를 고부가가치 부문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와의 경쟁구도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여 우리 산업은 중국과 차별화가 필요하며 중국이 강조하는 혁신정책을 한국이 더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환우 코트라 중국사업단 담당관은 “사드 제재 완화와 더불어 중국의 개혁개방 확대 및 포용적 대외정책을 감안할 때 중국내 비즈니스 여건은 개선될 것”이라며 “특히 녹색발전, 스마트시티, 농촌개발 등 지역개발 관련 시장에서 사업 기회가 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정은미 기자 21cindun@

최흥식 “업계이익 우선한 펀드 관행 고쳐야”

(금융감독원장)

투자자 중심 영업행위준칙 제정 등 불건전 운용·판매행위 점검 강화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은 6일 “펀드 판매나 운용과정에서 투자자 이익보다 업계의 편이나 이익을 우선시하는 관행을 조속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이날 금융투자협회장 및 15개 자산운용업계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이 말하며 “상품개발, 판매, 운용 및 사후관리 등 모든 업무단계에서 투자자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영업원칙을 확립하고 실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도 협회와 공동으로 ‘투자자 중심의 펀드영업행위준칙’을 제정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고, 불건전 운용·판매행위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금리가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리스크 관리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최흥식 금융감독원장.

최 원장은 “채권가격 하락에 따른 채권형펀드나 머니마켓펀드(MMF)의 환매증가 가능성에 대비해 펀드유동성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부동산·특별자산 등 해외자산 투자시 사업성심사와 전문인력 확보, 환위험 관리 등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고객자산 및 회사재산 운용이나 투자자 유치를 위한 과당경쟁 과정에

서 불건전 영업행위가 발생하거나 금융사고 발생우려도 있다”며 “이해상충 방지체계 구축과 자금집행 점검 등에 대한 내부 통제도 신경써달라”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금리상승이 MMF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하고, 상시감시시스템을 전면 개편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올해는 한국과 일본·호주·뉴질랜드·태국 등 아시아 5개국 간 펀드 교차판매를 허용하는 아시아 펀드패스पोर्ट가 시행된다. 해외 자산운용사외도 경쟁해야 하는 무한경쟁 시대다.

최 원장은 “체계적인 운용철학과 시스템을 갖추고 꾸준한 인력양성을 통해 특화된 경쟁우위를 갖출 필요가 있다”며 “성장가능성이 높은 신흥시장은 물론 호주·일본 등 아시아태평양 전 지역으로 적극 진출해 새로운 성장기회를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상미 기자 smahni@

김동연 “청년일자리 연계 보조금·세제지원 검토”

(경제부총리)

청년실업 문제 해결 위해 청년수당·추경 등 검토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일 자리를 얻은 청년에게 직접 가는 지원방법이 효과적”이라며 “일자리와 연계한 보조금뿐 아니라 세제혜택을 같이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청년실업 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수당과 같은 직접지원을 고려 중이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부총리는 “직접지원에는 예산으로 하는 방법과 세제혜택을 바로주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며 “재정 측면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연합뉴스

는 올해 일자리 예산이나 지난해 일자리 추경 예산을 쓰되 올해 청년일자리 추경도 꼭 필요하면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청년수당은 포퓰리즘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청년일자리나 구조조정 문제는 특히 특정하게 구조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면 여러 정책수단을 통해 풀어야 한다”며 “포퓰리즘이나 정치일정을 앞둔 선심성 지원이 아닌 경제적 이슈”라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한국 제너럴모터스(GM)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부의 3대 원칙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채무 실사를 위한 범위와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며 “한국GM은 빨리 실사해 결과를 바라고 대주주인 산업은행은 꼼꼼히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세종=최신용 기자 grandtrust@

생명보험협회 심의필 제 2018-636호(2018.2.13)



- ☑ 암에 걸리면 **실직**할 수도 있잖아요?
- ☑ **치료비**가 훨씬 **비싼 암**도 있다던데?
- ☑ **60세** 넘어 **암** 걸리는 사람 참 많거든?

그래서, 저 박상원과 라이나생명이 튼튼한 암 보장을 선언합니다!

[라이나생명(무)플러스암보험(갱신형)]

암, 치료법이 좋아지는 만큼
대비해야 할 비용도 늘었습니다.
비급여 신약치료비, 간병비, 생계비도
생각한다면 든든한 보장의
라이나플러스암보험에 지금 전화주세요!



신약치료비



간병비



생계비



박상원 / 생명보험판매자격보유

• 본상품은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 보장형 상품으로, 15세부터 60세까지 가입 가능하며, 10년마다 갱신을 통해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음 • 암 보장 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해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임 • 기존보험 계약해지 후 신계약 체결 시 보험인수 거절, 보험료 인상 또는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 • 보험 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람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음



24시간 상담 신청
지금 전화 주세요

080-763-7070

무역 금리 환율 안팎서 동시충격뎀, 블랙스완 현실화될 수도

〈도저히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일이 일어나는 것〉

비온드 스톰

⊙ 위기는 한꺼번에 온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과도한 생산을 줄이는 데 정말 관심이 있다면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 유럽연합(EU), 캐나다, 일본, 한국 등과 협력해야 한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동맹국을 화나게 했다.”(2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사설)

공포인가. 두려움인가. 요즘 세계경제를 두고 1930년 대공황이나 2002년 조지 W 부시 미 행정부의 무역전쟁 때를 떠올리는 이들이 많다.

“역사가 보여주듯 보호주의는 궁극적으로 아무도 보호해 주지 못한다”는 고든 브라운 전 영국 총리의 말까지 회자될 정도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서 시작된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해 경기 침체로 난국에 처한 각국 정부가 앞다퉀 직·간접적으로 보호무역주의를 추진하면서 폐해를 염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자칫 무역전쟁에서 시작된 위기가 ‘실물 경기 침체→실업 급증→소득 및 소비 급감→침체 심화’로 이어지는 악순환 고리를 만들어 각국 정부를 당황스럽게 할 수 있다는 것. 경기침체 심화는 각국 정부의 정치적 입지를 약화할 뿐만 아니라 사회 불안을 부추길 가능성이 높다.

모두들 위기가 말한다. 한국경제가 버텨낼 재간이 있을까.

‘경기침체→실업 급증→소득 급감→침체 심화’ 악순환 야기할 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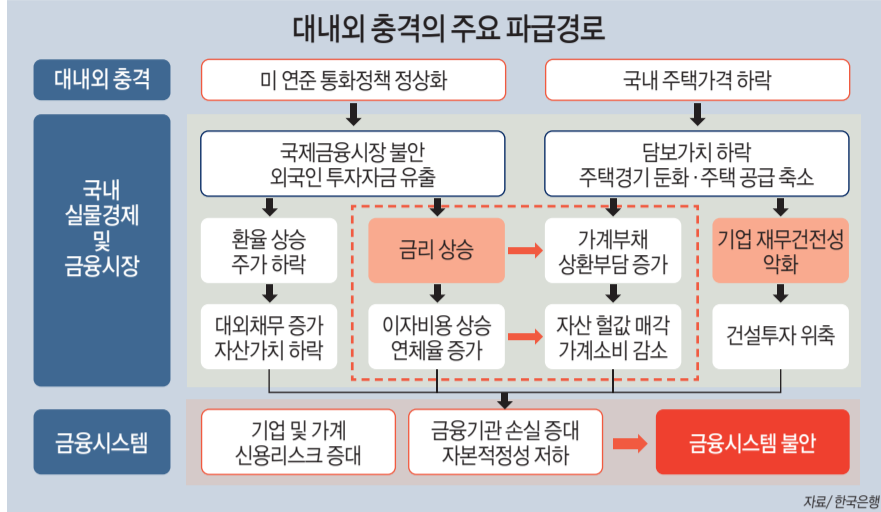
◆위기는 한꺼번에 온다

한국경제가 바람 앞에 촛불 신세다. 무역전쟁은 시작일 뿐이다. 저금리시대의 종말이 예고되면서 사면초가 상태에 빠질 수도 있다.

대신증권 박형중 이코노미스트는 “보호 무역 정책의 역효과(교역국과의 통상마찰, 교역량 감소, 세계경기 위축 등)는 상당하다. 트럼프는 단기적으로 보호무역 강화를 통해 성장세를 강화시킬 수 있고, 지지층을 결집하는 효과를 거둘 수도 있으며, 제조업 육성을 위한 약탈적 정책의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가시화된 한·미 기준금리 역전은 또 다른 복병이다. 현재 미 기준금리는 1.25%~1.50%로 상단이 한국과 같다. 골드만삭스, JP모건, 바클레이즈 등 해외 투자은행(IB)은 올해 미국이 네 차례 기준금리를 올릴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 기준금리가 연 2.25~2.50%까지 오른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출기업들은 금리발 ‘블랙스완(도저히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일이 일어나는 것)’이 걱정이다. 한·미 간 단기 금리 차가 1% 포인트 확대되면 원·달러 환율이 1.34%포인트 하락(원화값 상승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어서다. 원화 강세로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면 우리 기업이 달러로 받은 수출 대금을 원화로 환전했을 때 그만큼 손실이다



현대경제연구원원이 분석한 결과 환율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요인은 한미 간 단기 금리 차였다.

이 연구원 박정용 연구원은 “수익률 변동에 따라 외국인 투자 자금 유출이 일어나고 이 때문에 환율 변동성, 절상률을 높이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1450조원 규모의 가계부채도 걱정이다. 그 위험성은 경험적으로 잘 안다. 눈덩이처럼 불어난 부채가 순간의 정책 실패나 외부 충격과 결합할 때 충격은 상상을 초월한다. 세계 경제사를 봐도 심각한 경기침체는 가계 빚에 있었다. 미국발 금융위기의 전주곡이었던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위기는 가계부채가 주택시장의 버블 붕괴와 만나 터진 대표적인 사례였다. 힘의 논리로 접근하는 중국의 행태도 여전하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를 계기로 촉발된 중국 정부의 경제 보복이 1년째 이어지고 있는 것.

세계에서는 지난해 12월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주석 간 한·중 정상회담과 지난달 초 열린 한중 경제장관회의를 계기로 롯데를 겨냥한 중국의 보복이 완화되지 않겠느냐는 기대감이 흘러나오기도 했지만, 이후에도 상황 변화는 전혀 감지되고 있지 않다. 중국의 경제정책 총괄 부서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는 삼성전자에 반도체 가격 인상 자체를 요구하고 나섰다.

◆韓, 낮 놓다간 과거 전철 밟는다

“아직은 괜찮아 보인다”는 게 전문가들의 해석이다. 체력이 과거와 달라졌기 때문이다. 한국경제에 대한 믿음도 여전하다.

한국 국가 신용등급이 지난 10년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말

기준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한국 신용등급을 ‘Aa2’로,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AA’로 두고 있다. 2007년 말과 비교하면 무디스와 S&P 모두 3단계를 올렸다. 피치는 1단계 올린 ‘AA-’ 등급이다.

1월 말 현재 우리나라 외환보유액도 3957억5000만달러로 최대치를 경신했다. 지난해 기준 경상수지는 총 784억6000만달러로 1998년 이후 20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대외 채무의 질도 아직은 괜찮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대외금융자산에서 대외금융부채를 뺀 순대외금융자산은 2483억달러로 전년보다 296억달러 감소했다. 전체 대외채무에서 단기외채가 차지하는 비중은 27.7%로 전년보다 0.4% 증가했다. 준비자산(외환보유액)에서 단기외채가 차지하는 비중은 1.6% 증가한 29.8%였다. 한은은 “단기외채 비중이 소폭 증가하긴 했지만 한국의 단기 지급 능력은 여전히 양호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장기적인 성장성에 물음표를 다는 곳도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2020년대 2% 초반으로, 2030년대에는 1%대로 추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급속한 고령화와 서비스부문에서 뒤떨어지는 생산성, 노동과 생산시장 왜곡과 같은 구조적 문제 때문이다. 사회보장제도 확대, 생산성 향상과 노동 시장 참여 확대를 위한 구조개혁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김문호 기자 kmh@metroseoul.co.kr



미 달러화 강세의 영향으로 우리나라의 지난해 외환보유액이 6달 만에 감소한 6일 서울 중구 을지로 KE B하나은행 본점 위변조대응센터에서 직원이 외화를 검수하고 있다. /뉴시스

달러 강세에 외환보유액 4개월 만에 주춤

지난달 외환보유액 3948억달러 전월 대비 9억6000만 달러 줄어

지난달 외환보유액이 4달 만에 감소세로 전환했다. 미 달러가 강세를 보인 영향으로 외환보유액은 4000억 달러에 조금 못 미쳤다.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18년 2월 말 외환보유액’에 따르면 지난달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은 3948억 달러로 전월 3957억 5000만 달러 대비 9억6000만 달러 줄었다.

외환보유액은 올 1월까지 미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석 달 연속 증가하는 등 4000억 달러에 육박한 바 있다. 다만 지난 달 외화자산 운용수익에도 불구하고 미 달러

화가 강세로 돌아서면서 감소로 전환했다. 기타통화 표시 외화자산의 달러화 환산액이 감소했다. 지난달 주요 6개국 통화 대상 달러화지수(DXY)는 90.6으로 전월 89.1 대비 1.7% 상승했다.

유가증권이 3652억2000만 달러로 전체의 92.5%를 차지했다. 이어 예치금 197억 3000만 달러(5.0%), 금 47억9000만 달러(1.2%), 국제통화기금(IMF) 특별인출권(SDR) 34억2000만 달러(0.9%), IMF포지션 16억3000만 달러(0.4%) 등으로 집계됐다.

한편 지난 1월 말 기준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 규모는 세계 9위 수준으로 전월과 동일했다. 1위는 중국 3조1615억 달러, 2위는 일본 1조2685억 달러, 3위는 스위스 8363억 달러 등으로 나타났다. /이봉준 기자

해외여행은 늘고 관광객은 줄고

1월 서비스수지 적자 ‘사상 최대’

유커 감소 등 여행객 급감 영향
경상수지 흑자규모 4년 만에 최저

지난 1월 서비스수지가 ‘역대급’ 적자를 기록했다. 겨울방학을 맞아 해외여행을 떠난 내국인은 사상 최대를 기록한 반면 국내를 찾은 외국인인은 크게 감소한 영향이다.

이에 따른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4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감소했다. 다만 글로벌 경제 호조로 수출입이 모두 증가하며 상품수지 흑자 폭은 오히려 확대됐다.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18년 1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1월 서비스수지는 사상 최대 수준인 44억9000만 달러 적자를 보였다. 지난해 12월 37억7000만 달러 적자 이후 1개월 만에 기록을 경신했다.

여행수지가 21억6000만 달러 적자를 보였다. 직전 최대치였던 지난해 7월 17억9000만 달러 적자 이후 가장 많았다. 지난 1월 해외출국자 수는 286만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2.4% 증가하는 등 역대 최대였지만 중국인 관광객 감소 등으로 입국자 수는 95만6000명을 기록, 같은 기간 21.7% 줄었다.

한은 관계자는 “출국자 수 증가율이 최근 계속해서 두 자릿수를 보이고 있다”며 “원화가 강세를 보인 영향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품수지는 81억1000만 달러 흑자로 전년 동월 77억3000만 달러 대비 흑자 폭이 커졌다. 수입이 19.5% 증가하며 439억6000만 달러, 수출이 16.9% 늘어 520억7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처럼 상품수지 흑자 규모가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수지 적자 폭이 크게 확대되면서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26억8000만

달러에 그쳤다. 전년 동월 53억 달러 흑자와 비교하면 흑자 폭이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지난 2014년 1월 18억7000만 달러 이후 4년 만 최저 수준을 보였다.

한편 자본 유출입을 나타내는 금융계정은 41억1000만 달러 순자산 증가했다. 직접투자 부문에서 내국인 해외투자가 14억 달러 증가했고 외국인 국내투자는 12억6000만 달러 늘었다. /이봉준 기자 b355ae@

부채 5.2조 ‘돈먹는 하마’ 광물공, 타 기관과 통폐합

투자액 대비 회수액 고작 10%
혁신 TF, 산업부에 통폐합 권고
통폐합 대상 광물관리공단
“동반부실 초래... 책임 떠넘기는 꼴”
강력 반발에 통폐합 쉽지 않을 듯



지난 5일 한국광해관리공단 우리노동조합 홍기표 위원장과 조합원 70여명이 서울 종로구 석탄회관에서 해외자원개발 혁신 TF가 권고한 기관 통합안에 대한 반대 투쟁을 벌이고 있다. /뉴스시스

무리한 해외자원개발로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한국광물자원공사가 결국 다른 공공기관과 통폐합될 것으로 보인다. 광공업의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 중인 ‘해외자원개발 혁신 TF’가 산업통상자원부에 이 같은 방안을 권고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광물공사와 통폐합 대상으로 거론되는 한국광해관리공단 노조는 강력 반발하고 나서 앞으로 통폐합 과정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6일 산업부에 따르면 TF는 지난 5일 오후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광물공사 부실사업 처리방안을 발표했다. TF는 광물공사의 해외자원개발 사업

실태 점검과 지질자원연구원의 경제성 재평가 결과, 광물공사가 존속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TF에 따르면 광물공사는 해외자원개발 사업 부실로 부채 규모가 2008년 5000억 원에서 2016년 5조2000억원으로 급증해 완전자본잠식 상태다. 누적 회수액 5000억원은 총 투자액 5조 2000억원의 10% 수준에 불과하며 확정된 누적 손실액 19억4000만 달러는 총 투자

액의 41% 수준이다. 정부가 2016년 6월 수립한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에 따라 자산매각과 조직인력 축소 등 구조조정을 이행하고 있지만, 구조조정 지연과 주요 사업 생산실적 저조로 경영개선 성과가 미흡하다고 TF는 평가했다. TF 관계자는 “해외사업 계속 운영 시 향후 추가적인 손실 발생 가능성이 매우 커 국민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으며 지

속적인 유동성 위험에 대한 해결 방안이 부재하다”고 말했다. 다만 “공사를 즉시 청산할 경우 자산가치 하락에 따른 손실확대, 공적 기능의 유지와 고용 문제 등에 대한 해결이 곤란하다”며 “공사의 해외자원개발 직접 투자 업무는 폐지하고 광업지원, 비축, 해외자원개발 민간지원 등 공적 기능은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또 공사의 채무불이행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유동성 관리대책이 필요하며 정부가 부채에 대한 명확한 해결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이후 TF는 ‘원인규명·재발방지 분과’에서 해외자원개발 부실 실태와 원인, 책임 소재를 철저히 규명하고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TF는 권고안에서 통합 대상 기관을 명시하지 않았지만, 이전 회의에서 광해관리공단과 통합하는 방안도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TF 권고안을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계획이며 이 과정에서 대상 기관을 결정할 방침이다.

이 같은 TF의 결과가 발표되자 광물공사 노조는 즉각 성명을 통해 부실책임이 공사와 공사직원들만의 책임이라는 무분별한 비판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조는 “MB 정부와 정권 수뇌부, 당시 산업부 장관을 포함한 정부 당국자, 그리고 공사의 경영상황을 무시하고 특정한 사업에 과도한 투자를 결정한 전임 경영진의 책임자를 밝힐 것을 촉구한다”며 “조합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인력구조조정 방안에 대해서는 그 어떠한 논의도 거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안정적 해외자원개발을 위해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광해관리공단우리노동조합도 “근본적인 부채해결방안 없이 동반부실을 초래하는 기관통합안에 절대 반대한다”며 “이전 정권 적폐의 산물인 부실 해외자원개발의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책임자 처벌과 국민 상식에 맞는 광물자원공사의 구조조정방안을 시행하라”고 말했다. /세종=최신용 기자 grandtrust@metroseoul.co.kr

산업부, 美에 철강관세 대상 제외 요청

김현중 본부장, 9일까지 미국 방문
주요 상·하원의원에 韓입장 전달



지난 5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수입제품에 대한 ‘관세폭탄’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린 대외통상관계장관회의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조만간 확정되는 미국 정부의 철강 관세 조치를 방어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김현중 통상교섭본부장은 6일부터 9일까지 미국을 다시 방문해 한국산 철강을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김 본부장은 지난달 25일부터 3월 2일까지 미국을 방문해 미국 행정부 주요인사와 상·하원의원, 주 정부 및 제조업·농축산업계 인사 등을 만나 미국이 발표한 철강 관세 대상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해줄 것을 설득했다. 이번 방문에서 김 본부장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 행정부 인사와 오리 해치 상원 재무위원장 등 주요 상·하원 의원들을 만나 정부 입장을 전달하는 활동을 할 예정이다. 백운규 산업부 장관도 지난 5일 로스 상무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232조 관세 대상에서 한국을 제외해달라고 요청했으며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당면한 통상 현안을 조속히 해결하고 미래지향적 협력관계로 나아가자고 제안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조치에 대한 세계 각국의 반대는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다. 크리스티아 프릴랜드 캐나다 외교장관은 5일(현지시간) 미국으로 수출되는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어떠한 관세에 대해서도 대응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고 AFP통신과 로이터통신 등이 전했다. 프릴랜드 장관은 이날 멕시코 수도 멕시코시티에서 열린 7차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 종료 후 미국, 멕시코

측과의 공동기자회견에서 “캐나다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규제가 부과된다면, 캐나다는 우리의 무역 이익과 우리의 노동자들을 지키기 위해 적절한 대응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도 미국의 철강 ‘관세폭탄’에 피해국들과 연대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6일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중국 전직 고위 관료와 관련 학자들을 인용해 미국의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고율 관세에 맞서 중국은 유럽연합(EU)과 캐나다 이외에 다른 국가들과 협력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세종=최신용 기자

올 공공주택 14만8000호 공급

국토부, 공급 세부계획 수립

정부가 올해 공공주택 14만8000호에 대한 공급계획을 수립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공공주택(공공임대주택+공공분양주택) 공급계획에 대한 권역별 및 사업자별 등 세부계획을 수립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의 5년간 100만호 공적주택 공급계획에 따른 것으로 올해 공급 계획인 14만8000호에 대해 지자체별 공급계획 조사 및 조정 등 협업을 기반으로 세부계획을 수립했다. 우선 권역별로 살펴보면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은 경기 2만9000호, 경상권 1만

8000호, 충청권 7000호가 공급된다. 매입형 및 임차형 공공임대주택은 서울 1만7000호, 경기 1만3000호, 경상권 1만2000호 등이 공급된다. 공공분양주택은 기존 택지를 활용해 권역별로 경기 5000호, 충청권 8000호, 서울 2000호 등을 공급할 예정이다. 사업자별로는 LH가 11만1000호, 서울시(SH 포함)가 1만4000호 등을 공급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2018년 공공임대 13만호 및 공공분양 1만8000호 공급 목표 달성을 위해 지자체와 긴밀한 협업을 진행할 것”이라며 “연말 성과평가를 통해 우수 지자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제공 등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최신용 기자

‘뇌물수수 의혹’ 이명박 14일 소환

檢, ‘피의자 신분’ 출석 통보

검찰이 100억원대 뇌물수수 의혹 등을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다음주 소환 조사한다. 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날 이 전 대통령에게 14일 오전 9시 30분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 받으라고 소환 통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그동안 진행된 수사 상

황을 감안할 때, 실제적 진실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밝히기 위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이 검찰 출석요구에 응할 경우, 노태우·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 사상 네 번째로 피의자로 검찰에 출석하는 전직 대통령이 된다. 앞서 전두환 전 대통령은 1995년 ‘12·12 및 5·18 사건’ 수사를 맡은 검찰 소환에 불응해 ‘골목길 성명’을 발표하고 고

향 합점으로 내려갔다 체포됐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 전 대통령 소환을 통보하기 전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수사 경과를 보고하고 향후 수사 계획에 관한 재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 등이 국정원에서 최소 17억5000만원의 특수활동비를 상납받는 데 관련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를 받았다. 검찰은 지난달 5일 김 전 기획관을 구속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이 전 대통령을 ‘주범’으로 적시했다. /이범중 기자

‘말 산업’ 경제적 효과 3조4200억원

전년비 0.3%p 증가... 총 2만7210두

최근 승마 인구 증가로 관련 산업이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2016년 말산업의 경제적 효과가 3조4200억원이라는 조사가 나왔다. 6일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2017년 말산업실태조사’에 따르면 말산업 경제적 효과(2016년 말 기준)는 2015년 말 기준 대비 101억원(0.3%) 증가한 3조4221억원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말 사육두수는 총 2만7210두로 2016년 보다 94두 증가했고 승마인구는 94만8714명으로 전년도 보다 1만 명 이상 증가해 승마가 취미활동으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음을 나타냈다. 이에 따라 관련 산업 또한 성장세를 보였다. 말산업 사업체 수는 2016년 대비 8.4% (192개소) 증가한 2470개소로, 이중 말보유 사업체수는 2016년 대비 9.5% (186개



지난해 경기 과천시 한국마사회 ‘렛츠런파크 서울’ 86승마경기장에서 열린 ‘말 운동회’ 모습. /연합뉴스

소) 증가한 2146개소로 조사됐다. 특히 정부의 말산업 육성정책 일환으로 농어촌형 승마시설 등 설치 지원 사업을 진행한 결과 지난해 농어촌형 승마시설수는 2016년 대비 18.9% (27개소)가 증가했으며 전체 승마시설수 역시 2016년 대비 6.9% (33개소) 증가한 512개소로 조사돼 제1차 말산업육성 종합계획에 따른 목표인 500개소를 달성했다. /세종=최신용 기자

‘비주류’ 취급 받던 SNS, 사회개혁 ‘잔다르크’로 부상

(사회관계망서비스)

미투 운동, SNS 통해 빠르게 확산 남북단일팀 구성 분노 표출 도구로 실시간검색어 운동으로 항의하기도 확장·포퓰리즘 등 한계도 있어

과거 ‘변방’이나 ‘비주류’ 취급을 받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여론이 사회개혁의 ‘잔다르크(백년전쟁 당시 프랑스를 위기에서 구한 영웅)’로 급부상하고 있다. 미투 열풍, 평창 단일팀 논란, 비트코인 규제 반대 운동 뒤에는 SNS 즉 1인 미디어가 있었다. 소셜 미디어가 전통 언론을 넘어선 것은 옛말이 되버렸다.

6일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언론수용자 의식조사’ 결과를 보면 한국인의 45.5%가 SNS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람들은 미디어 수용자에서 벗어나 2200만 개의 1인 미디어가 되어 직접 뉴스를 생산하고 여론을 만들며 사회를 변화시키고 있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약자의 의견에도 귀 기울이는 소셜 미디어의 순기능을 높게 평가하면서도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 ‘확증편향’의 함정을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미투 운동, 국민의 88.6%가 지지 “이제라도 이 이야기를 해서 용기를 낸 분들께 힘을 보태는 것이 내가 후배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선배가 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김수희 극단 미인 대 표는 지난 1월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윤택 연출가의 성폭행 사실을 폭로한 글을 ‘metoo(미투)’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올리며 미투 운동에 동참했다.

서지현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의 고백으로 시작된 ‘미투 운동’은 SNS를 통해 빠르게 사회 전반에 확산됐다. 소셜 미디어를 통해 번진 ‘미투 운동’은 피해자들 사이에서 강한 공감대를 형성하며 강력한 지지층을 만들어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지난달 19~22일 전국 성인 남녀 106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미투 운동에 대한 국민 인식’ 여론 조사 결과(95% 신뢰 수준 ±3.0%포인트)를 보면, 응답자의 88.6%가 미투 운동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투 운동의 전개 양상에 대해서는 조사 대상의 63.5%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캠페인’이 될 것 같다고 답했다. 이는 ‘일시적 유행처럼 지나갈 것 같다’라는 부정적 응답에 비해 27%p 높은 수치다. 현재 미투 운동은 SNS상에서 콘크리트 지지층을 만들어 가며 한 달째 이어지고 있다.

◆남북단일팀 분노… 文 지지율 50%대로 추락

지난달 17일 정부가 북한과 여자아이스하키 종목에서 남북단일팀을 구성하기로 합의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SNS상에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사진과 인공기를 불태우거나 찢는 영상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유튜브에는 6500개가 넘는 ‘김정은 화형식’ 영상이 올라왔고, 누적 조회수는 200만을 돌파했다.

남북 단일팀 추진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 분노를 표출했다. 서울의 모 사립대학교 ‘대나무숲(익명 페이스북)’에는 ‘해당 팀 선수들과 일절 상의하지 않고 일방적인 합의로 단일팀이 구성된 것에 대해 화가 난다. 이것이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것인가?’라는 내용의 글이 올라오는 등 사람들은 직접 SNS에 뉴스를 만들어 퍼뜨렸다.

소셜 미디어 여론은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도에도 영향을 미쳤다. 리얼미터가 1월 4주 차 전국 성인남녀 150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95% 신뢰 수준 ±2.5%포인트)에서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은 59.8%로 취임 후 처음으로 50%대로 떨어졌다.

◆가상화폐 규제 반대, “총선때보자” SNS 여론은 가상화폐 시장에서도 위력을 과시했다. 지난 1월 11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를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암호화폐 투자자(코이너)들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 빠르게 거래소 폐쇄에 대한 반대 여론을 만들어 냈다. 코너들은 가상화폐 규제에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을 SNS에 공유하며 20만 명의 동의를 얻어 냈다. 정부는 소셜 미디어 여론이 악화되자 나흘 만에 ‘거래소 폐쇄 방안은 향후 충분한 협의와 의견 조율과정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며 한발 물러섰다.

같은 달 31일에는 네이버 비트코인 카페에

원인 주동 하에 정부의 가상화폐 규제 정책에 항의하는 뜻으로 “총선때보자”를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려놓기도 했다.

◆포퓰리즘적 한계 극복이 과제 SNS, 1인 미디어가 기성 언론을 뛰어넘어 사회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과거 주요 언론사만이 갖고 있던 의제설정 권한이 소셜 미디어로 옮겨가고 있는 양상이다. 미디어 수용자였던 사람들이 직접 뉴스를 생산하고 여론을 형성하고 있다.

신성호 성균관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과거 신문·방송 등 전통매체에 접근이 어려웠던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들이 SNS를 통해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됐다”며 소셜 미디어가 가져온 사회 변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신 교수는 또 “뉴스 생산자의 관심 분야가 각자 달라 콘텐츠들이 매우 다양해졌다”고 말했다.

한편 신 교수는 “1일 미디어에서 이야기하는 주장 혹은 비판의 경우 이성적이기 보다는 감성적이고 대중영합적(포퓰리즘적)으로 흐르기 쉽다”며 소셜 미디어의 한계를 지적했다. 나은영 서강대학교 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역시 “정확한 여론을 알기 위해서는 SNS상에서 ‘많은 발언을 하는 사람들’과 ‘침묵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모두 살펴봐야 한다”며 “반대되는 시각을 보여주는 미디어도 함께 이용함으로써 균형적인 시각을 가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 지난 1월 14일 김수희 극단 미인 대표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윤택 연출가의 성폭행 사실을 폭로했다(대위). 지난 1월 31일 ‘총선때보자’가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롯데월드타워 봄청소 대장정 시작 경칩인 6일 오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전문 고소작업자들이 유리 외벽을 청소하고 있다. 롯데월드타워 123개 층의 약 4만2천여 장을 청소하는 데는 약 700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하루 8시간 작업하는 것으로 가정해 날수로 환산하면 약 90일이 걸리는 대규모 청소 작업이다. /연합뉴스

가맹거래법 위반 ‘비비큐’ 과징금 3억원

공정거래위원회 인테리어 부담 비용 일절 미지급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거래법을 위반한 제너시스비비큐(이하 비비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원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결과 비비큐는 가맹점주(75명)의 인테리어 개선에 소요된 비용 중 가맹거래법에 따라 자신이 부담해야 할 비용(공사비용의 20% 또는 40%)을 일절 지급하지 않았다. 현행 가맹거래법은 가맹본부가 권

유·요구하여 가맹점이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소요된 비용의 20% 또는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맹본부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비비큐는 자신의 요구·권유에 따라 가맹점주가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비용을 일절 부담하지 않은 위법행위를 했다. 비비큐는 가맹점의 점포환경개선을 자사의 주요 경영목표로 설정·시행하고, 자사직원에 대한 성과평가지 인테리어 개선 정도를 평가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조직적으로 독려했다. 또한 비비큐는 가맹점주들에게 점포환경개선을

해야만 재계약이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설명하고, 점포환경개선 추진에 동의해 줄 것을 먼저 요구했다. 아울러 가맹점주가 인테리어 개선 요구에 동의하는 경우 비비큐는 각 가맹점주에 대해 ‘점포환경개선 요청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들에게 점포환경개선 비용을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행위를 근절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비용을 합리적으로 부담토록 하는 한편, 가맹본부의 불필요한 점포환경개선 요구 행위도 감소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인용 기자 parku7854@

| 전남 소식 |

5·18기념재단 신임 이사장에 김영진 前 장관

이사회사 만장일치로 선출 5·18기념재단 이사회는 지난 2일 이사회를 열고, 김영진 전 장관(사진)을 신임 이사장으로 선출했다. 김영진 신임 이사장은 5선 국회의원으로 노무현 정부의 초대 농림부 장관을 역임했다. 1988년 광주청문회에서는 청문위원으로, 2011년에는 5·18민주화운동기록물을 세계유네스코기록유산으로 등재하는데 큰 공헌을 한 바 있다.



5·18기념재단 이사회는 김영진 신임 이사장의 이런 활동 경험과 함께 5·18진상규명 및 5·18 40주년 준비 등에 있어서 필요한 식견과 역량을 겸비하고 있는 점을 높이 샀으며, 현 상황에서 재단을 이끌어갈 적임자로 판단해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전남 광주=김남중 기자

진도군 ‘국민신청실명제’로 사업 투명성 제고

진도군은 기존의 규정 정책실명제를 대폭 개선하고, 주민들의 뜻을 반영한 ‘국민신청실명제’를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국민신청실명제는 행정기관이 수립하고 시행하는 주요 정책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관리하고, 정책 실명제를 강화하기 위해 국민이 원하는 사업이 공개될 수 있도록 국민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이다.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기간은 이달 30일까지로 규정 홈페이지 정책실명

제 코너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사업명과 신청 사유를 작성한 후 담당자 이메일, 우편 또는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국민이 공개 신청한 사업은 4월중 진도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에 심의 상정된다. 단, 진도군 소관 사항이 아니거나 정보 공개법상 비공개 사유 등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위원회에 상정되지 않는다. 심의위에서 정책실명 공개과제로 선정된 사업은 규정 홈페이지에 공개할 계획이다. /전남 진도=김남중 기자

해남읍 환경미화원 깨끗한 가게·골목 뿔는다

깨끗한 거리를 만들기 위해 최일선에서 활약하고 있는 환경 미화원들이 해남군의 깨끗한 가게와 깨끗한 골목을 선정한다. 해남읍은 올해 특수 시책으로 환경미화원이 뽑은 ‘깨끗한 가게·깨끗한 골목’을 선정해 주민들과 함께하는 쾌적한 시가지 조성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읍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모든 가게를 대상으로 매월 환경미화원으로부터 생활쓰레기 및 음식물류 폐기물을 잘 처리하는 모범 업소를 추천받아 분기별로 최다득표 가게를 선정한다. /전남 해남=김남중 기자

‘김달님’ 네이버 웹툰! MBC 드라마에 이어
 최단기 10만관객돌파, 로맨틱코미디 연극으로 재탄생!



우리의 눈 로맨스

원작 김달님

2017. 1. 13 ~ OPEN RUN | 대학로 올레홀

공동제작 PLAY혜움 컬처마인 예매 인터파크 1544-1555 문의 컬처마인 1566-5588

LG유플러스-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중소기업 NB-IoT 개발 돕는다

〈협대역 사물 인터넷〉

시험센터·전문인력의 컨설팅 지원
“경쟁력 높여 대기업-중소간 상생”

LG유플러스는 사물인터넷 분야에서 중소기업의 사업기회 창출을 위해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와 ‘사물인터넷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을 6일 가졌다.

이번 업무협약은 국제표준 기반의 협대역 사물인터넷(NB-IoT) 제품을 중소기업과 개발하고, 이에 대한 신뢰성 있는 검증이 가능하도록 시험센터와 전문인력을 지원해 중소기업 제품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는 데 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LG유플러스 협력 중소기업은 이번 협약을 통해 NB-IoT 단말의 개발이 완료되면 TTA가 운영중인 ‘글로벌 IoT 시험인증센터’에서 개발지원시험 서비스를 제공받아 국제표준 기반의 사물인터넷(IoT) 시험 검증을 손쉽게 진행할 수 있게 된다.

또 글로벌 IoT 시험인증센터에서는 중소기업에게 검증 과정에서 문제 발생 시 해결 기간 단축에 도움이 되도록 NB-IoT 시험 인증 전문인력의 기술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이다.

LG유플러스 -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시험인증 업무협력을 위한 양해각서



6일 경기 판교 글로벌 IoT 시험인증센터에서 LG유플러스 박상봉 IoT품질담당(왼쪽)과 TTA 박용범 정보통신시험인증연구소장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LG유플러스

이 외에도 LG유플러스는 NB-IoT 상용화 기술 노하우와 마케팅 등을 지원해 개발 검증 지원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제품 상용화도 도울 계획이다.

이에 따라 IoT 분야 우수 기술을 보유한 국내 중소기업들은 검증에 필요한 인력과 별도의 시험 환경 구축이 필요하지 않아 사업화 비용 절감이 가능하게 됐다.

LG유플러스 박상봉 IoT품질담당은 “LG유플러스가 보유한 IoT 기반 기술과 마

케팅 역량을 지원해 중소기업의 서비스 상품 경쟁력을 높여 이 분야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는 좋은 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LG유플러스는 2017년 전국 시도 지역에 NB-IoT 전용망 구축을 완료한 데 이어 지난 1월 국내 최초로 NB-IoT 기반의 스마트 배관망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상용 서비스를 시작했다.

/김나인 기자 silkni@metroseoul.co.kr

“블록체인 도입, 안전 지불 인증”

조용만 조폐공사 사장 간담회
일자리 창출·글로벌 경쟁력 제고
해외사업 다변화 등 중점과제 발표



조용만 조폐공사 사장.

조용만 조폐공사 사장은 6일 “올해 국민 편의 증대와 완벽한 품질의 제품 공급을 위해 ‘국민 퍼스트(First), 품질 베스트(Best)’ 경영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 사장은 이날 기획재정부에서 취임 이후 첫 기자간담회를 갖고 사회적 가치 실현 선도 등 5대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하며 이 같이 말했다.

조폐공사는 지난해 매출액 4778억원, 영업이익 88억원 등 창립 이래 최대 경영 실적을 경신했다. 화폐 등 전통적 주력사업의 정체에도 불구하고 신규 사업과 해외시장 개척 등으로 일궈낸 성과다.

조폐공사는 이와 같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 올해 더 좋은 일자리 창출 중심의 사회적 가치실현 선도, ‘콤포스코(KO MSCO) 신뢰플랫폼’ 구축 완료 및 시범서비스 개시, 격이 다른 무결점 제품 생산, 연구개발(R&D) 역량 강화로 미래 선도기술 확보, 글로벌 경쟁력 제고 통한 해외사업 제품·시장 다변화 등 5대 중점과제를 추진한다.

먼저 조폐공사는 더 좋은 일자리 창출 중심의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해 올 상반기 중 정원의 5%에 달하는 75명의 청년을 블라인드 방식으로 채용할 방침이다. 조폐공사는 지난 2014년 50명, 2015년 49명, 2016년 71명, 2017년 60명 등 최근 4

년간 230명을 신규 채용한 바 있다. 또한 ‘콤포스코 신뢰플랫폼’을 올 하반기 중 구축 완료하고 공공분야에서 모바일 발급 등 시범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콤포스코 신뢰플랫폼은 4차 산업혁명시대 핵심기술인 블록체인과 조폐공사의 공신력을 결합해 공공분야에서 안전한 지불 인증 수단의 발급과 정보보호 및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뜻한다.

이 외 R&D 역량 강화를 통한 미래 선도기술 확보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통한 해외사업 제품·시장 다변화를 진행한다.

조용만 사장은 “공기업으로서 국민이 원하고 국가가 필요로 하는 공공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며 “국민들의 높아진 눈높이에 맞춰 ‘국민이 신뢰하고 필요로 하는 공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봉준 기자

기보, 페루에 기술평가보증제도 노하우 전수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일환

기술보증기금은 기술평가제도를 중남미 지역에 소개하기 위해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3일까지 페루를 방문해 현지 설명회를 개최했다.

기보는 지난해 7월부터 페루정부와 유관기관에 기술금융시스템 전수를 위해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의 일환으로 페루정책자문을 진행해 왔다. 이번 사업은 페루형 기술평가지표 및 제도, 기술인증 및 보증제도, 기술혁신 지원체계 구축 등을 주요 사업내용으로 한다.

전문가단은 지난달 27일 페루산업협회에서 열린 현지설명회에서 페루 솔 생산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중남미 5개국(아르헨티나·페루·볼리비아·온두라스·콜롬비아)의 보증기관 임원들을 대상으로 기보의 기술평가제도를 소개하고 중남미 확대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설명회는 ALIGA(중남미보증



(왼쪽에서 첫 번째) 기술보증기금 강낙규 전무이사, (왼쪽에서 세 번째) 페루 생산부 장관. /기보

기관연합)의 요청으로 개최됐으며 기획재정부의 KSP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페루형 기술평가제도의 정책자문 컨설팅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기보는 페루의 KSP 진행경과와 중소기업의 R&D·지식재산 진흥을 위한 보증 및 평가제도를 소개했다. 페루 측은 기술보증기금 제도에 대한 중남미 확대방안과 KSP의 성과를 발표했다.

이번 행사에서 솔 페루 생산부 장관은 기보로부터 전수 받은 기술평가 및

기술금융제도 관련 페루내 안착을 강조하면서 기보의 기술적 지원과 향후 페루형 기술평가시스템(PTRS) 개발을 위한 실질적인 협력을 강조했다.

기보 강낙규 전무이사는 “중남미의 조선 및 자동차 부품산업은 국내 관련 산업의 블루오션을 될 수 있다”고 강조하며 “기보의 관련산업 고객기업의 중남미 진출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기보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기술평가시스템(KTRS)은 그간 KSP사업을 통해 베트남, 태국, 페루 등에 전파되는 등 세계 각국에서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개도국과 선진국 등 다양한 나라에서 기술평가 노하우에 대한 전수 요청이 이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기보 관계자는 “기보의 해외 전수사업은 7만여 고객기업의 해외진출 및 해외기술이전 사업에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봉준 기자 bj35sea@



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공동구매위원회 출범식에서 위원장을 맡은 김계원 가구나산업조합연합회장,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왼쪽 다섯번째부터) 등 참석자들이 박수를 치고 있다. /중기중앙회

중기중앙회 ‘공동구매’ 출범... 보증제도 자문

중소기업중앙회는 ‘공동구매위원회’를 본격 출범했다고 6일 밝혔다.

‘공동구매위원회’는 올해 3월부터 시행되는 공동구매 전용보증제도에 참여하는 협동조합의 대표자를 위원으로 위촉해 보증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자문과 공동구매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위원회는 김계원 대한가구나산업협동조합연합회장을 위원장으로 위원 11명 및 자문위원 1명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2년이다.

‘중소기업 공동구매 전용보증제도’는 대기업보다 구매물량이 적어 상대적으로 비싼 단가에 자재를 사야하는 중소기업들이 협동조합을 통해 공동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거래를 보증해 주는 제도다.

중기중앙회는 신보·기업은행과 양해각서(MOU)를 맺고 정부예산 15억원, 기업은행 15억원 등 총 30억원을 신보에 보증재원으로 출연해 올해 600억원을 보증 발급하고 2000억원의 공동구매를 지원할 계획이다.

/김승호 기자 bada@

GC녹십자 육아 지원 등으로 ‘워라벨’ 앞장

사내 보육시설 개원

GC녹십자는 경기도 용인시 목암타운에 사내 보육시설 ‘GC 차일드케어 센터(Childcare Center·사진)’를 개원했다고 6일 밝혔다.

GC녹십자 측은 GC 차일드케어 센터 오픈으로 일과 가정생활에 모두 충실할 수 있는 환경 만들기에 앞장서겠다고 설명했다. ‘GC 차일드케어 센터’는 대지면

적 2943㎡(890평)에 지상 2층 독채 건물로 지어졌고, 총 정원은 79명으로 계약업체 최대 규모로 운영된다. 교사 1명당 담당 영유아 비율을 낮추기 위해 총 11명의 교사를 배치했다.

센터 내에는 단체 활동을 위한 강당과 특별활동실, 식당, 학부모 대기공간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교사들의 근무 환경을 고려해서 사무공간 외 별도의 휴게공간도 마련했다. 또한 건물밖에는 아이들



이 마음껏 뛰어 놀 수 있는 잔디밭과 놀이터가 조성됐다. 센터 운영시간은 직원들의 출퇴근 시간을 고려해 오전 7시반부터 오후 7시반까지다. /박민용 기자 parkiu7854@

식약처

‘마약류 정책설명회’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8일 ‘2018년 마약류 및 원료물질 정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마약류 및 원료물질 제조업자 등을 대상으로 올해 마약류 안전

관리 정책 방향을 안내하고 마약류 및 원료물질 제조·수출입업자의 취급 준수사항 등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2018년 마약류 주요정책 추진방향 ▲2018년 마약류 및 원료물질 취급자 제조수입유통 사후관리 점검사항 ▲마약류취급보고제도 시행 계획 ▲마약류 수출입승인 등 민원처리절차 등이다. /박민용 기자

“서울, 패션 중심지로... 신진 디자이너 지원”

서울디자인재단

19일 '헤라 서울패션위크' 개막
글로벌 패션업계와 협업 구축

서울디자인재단이 오는 18일부터 펼쳐지는 '2018 F/W 헤라서울패션위크'를 통해 국내 신진디자이너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글로벌 패션업계와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헤라서울패션위크의 글로벌 위상을 강화, 신진디자이너들을 위한 판로를 적극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서울디자인재단은 6일 서울 동대문 디자인플라자(DDP)에서 '2018 F/W 헤라서울패션위크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이번 시즌 패션위크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전했다.

정구호 헤라서울패션위크 총감독은 이날 "2명의 런던 신진디자이너를 초대해서 쇼를 진행하는 등 관련 프로그램을 기획 중"이라며 "런던은 신진디자이너의 지원 프로그램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어 국내 디자이너들이 얻을 수 있는 것 또한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런던을 시작으로 파리, 뉴욕 등 다양한 패션 선진국과의 협



6일 (왼쪽부터)정구호 총감독과 김윤희 패션문화본부장이 '2018 F/W 헤라서울패션위크'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서울디자인재단

업도 이어갈 계획이다.

그는 "이번 시즌에도 미주, 유럽 하이엔드 백화점과 온라인 편집샵 바이어 50명, 아시아권 백화점 및 편집샵 바이어 130여명을 비롯, 중동바이어들도 참가할 예정"이라며 "실력 있는 국내 디자이너들의 높은 우수성과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정구호 총감독이 현대홈쇼핑과 조성한 'J by 패션발전기금'을 통해 신진디자이너 지원도 늘린다. J by 패션발전기금은 올해 SS시즌 2억3000만원으로 2019년 SS시즌까지 연간 3억으로 증액, 디자이너

후원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2018 F/W 헤라서울패션위크는 오는 19일부터 24일까지 동대문 DDP에서 열린다. 이번 시즌에는 헤라, 하겐다즈, MINI, 할리스, 동아TV 등이 기업이 후원했다.

행사는 19일 김혜순 한복 디자이너의 오픈링 컬렉션을 시작으로 국내 디자이너 브랜드 37개와 2개의 기업이 패션쇼가 펼쳐질 예정이다.

2016년부터 신설된 전문 우수상담사인 '제너레이션넥스트서울'에서는 90여개의 디자이너 브랜드 및 신진 디자이너의 수

주 상담회와 제너레이션 넥스트 패션쇼가 13회 개최된다.

정 총감독은 "제너레이션넥스트 지원자가 항상 미달이었는데 올 시즌은 지원자가 늘어 4.5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며 기대감을 전했다.

시민참여행사로는 22일부터 24일까지 패션 영화를 무료로 관람할 수 있는 제3회 패션필름페스티벌이 DDP 갤러리룸에서 개최된다. 유명 매거진 '데이즈 코리아'와 함께 진행되는 이번 패션필름페스티벌에서는 감각적이고 패셔너블한 영화들이 상영될 예정이다.

이 외에도 MINI와 오디너리 피플의 협업으로 제작된 MINI Retro blue 에디션이 어울림광장에 전시되며 제너레이션넥스트 디자이너들에게 영감을 준 오브젝트를 담은 사진전인 '라이프 플러스 모먼트'가 DDP 살터 2층 크레아에서 개최된다.

헤라서울패션위크의 모든 컬렉션은 서울패션위크 공식 홈페이지, 어플리케이션, 동아TV x V라이브 등 온라인 및 모바일 스트리밍과 어울림광장 내 야외 대형 스크린을 통해 라이브로 생중계 될 계획이다. /김유진 기자 ujin6326@metroseoul.co.kr

| 유통 단신 |

오리온

석류의 상큼함 담아낸
'젤리데이 석류' 첫 선

오리온은 6일 '젤리데이 석류'를 출시했다. 이 제품은 석류 본연의 상큼한 맛을 구현했다. 오리온은 최근 성인을 타겟으로 한 기능성 젤리 시장이 확대되는 것에 착안해 젤리데이 석류를 출시하게 됐다. 석류는 여성들에게 특히 좋은 과일로 알려져 있어 건강과 미용에 관심이 많은 20~30대 여성층에게 인기를 끌 것으로 보인다.



박인용 기자



롯데마트

테이블웨어 공모전 수상작
'스위트 가든' 시리즈 선봬

롯데마트는 지난해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와 공동주관으로 진행한 '롯데마트 테이블웨어 상품개발 공모전'의 수상작 시리즈를 선보이며 '봄맞이 리빙웨어'를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시리즈는 롯데마트 및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유통 담당 전문위원과 기업, 대학, 유관 기관의 전문가 심사위원 등이 엄격한 심사를 거쳐 우수상을 수상한 작품이다. /김유진 기자



비비안

봄 신상 '리얼마이핏' 출시

속옷 브랜드 비비안은 2018년 봄 신상품 '리얼마이핏(Real My Fit)' 브라를 출시했다고 6일 밝혔다. 리얼마이핏 브라는 이름처럼 브라를 착용했을 때 정말 내 가슴인 듯 가슴을 자연스럽게 아름답게 연출해준다. 컵 안에는 그물망 조직의 '마이핏패널(My Fit Panel)'이 있어 가슴 옆 부분까지 한 번 더 감싸준다. /김유진 기자

BGF리테일

“삼성카드로 결제하고
도시락 반값에 먹자!”

BGF리테일은 삼성카드 결제 시 전체 CU 도시락 상품을 50% 할인해주는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전월 실적에 상관없이 할인 받을 수 있으며 결제 시 100% 포인트 사용도 가능하다. 행사는 오는 31일까지 오전 8시~11시에 이용 가능하며 카드 당 1개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김유진 기자

‘미세먼지 NO!NO!’... 맘편한 하늘 캠페인 전개

세븐일레븐 - 환경재단 MOU

전국 인프라 활용 환경 개선 지원
어린이 지원·도시숲 등 재원 활용

세븐일레븐이 미세먼지 없는 건강한 환경 만들기에 앞장선다.

세븐일레븐은 환경재단과 미세먼지 예방을 위한 상호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미세먼지 NO!NO! 맘편한 하늘 맑고 푸르게'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6일 밝혔다.

'맘(mom)편한'은 롯데의 사회공헌 브랜드로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엄마들이 아이들을 마음 놓고 키울 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미세먼지는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유해환경 요소로서 국가적 관리 항목으로 떠오를 만큼 그 심각성에 대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북측광장에서 열린 세븐일레븐 '미세먼지 NO!NO! 맘편한 하늘 맑고 푸르게' 캠페인에서 최영 환경재단 이사장(뒷줄 왼쪽 다섯번째부터), 박상숙 세븐일레븐 춘천애막골점 경영주, 정승인 세븐일레븐 대표가 환경기금 마련을 위한 동전모금 세리머니 후 캠페인 구호를 외치고 있다. /세븐일레븐

한 사회적 관심이 날로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세븐일레븐은 전국 인프라를 활

용한 다양한 환경 개선 지원 활동을 통해 어린 아이들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깨끗한 환경 조성에 기여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세븐일레븐은 전국 9200여 점포에 동전모금함을 설치하고 마스크 등 미세먼지 관련 상품의 판매 수익금 일부를 기부할 계획이다.

또 전국 점포 인프라를 활용해 미세먼지의 심각성과 각종 건강 관리 정보 등을 알리는 대국민 홍보 활동과 함께 대중교통 이용 캠페인도 적극 펼쳐 나간다.

이 외에도 세븐일레븐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마련된 재원을 가지고 환경재단 미세먼지센터와 함께 다양한 환경 개선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미세먼지 취약계층인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환경 교육 및 각종 지원 활동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관련 연구에 대한 투자, 도시 숲 조성 등에 재원을 활용할 계획이다. /김유진 기자 ujin6326@

홈플러스, 지역맥주 新시리즈 '여수맥주' 코코일레븐 '학생·서재 에디션' 신상품 4종

맑고 짙은 색상의 엠버 에일 맥주

홈플러스는 새 지역맥주 시리즈 신상품 '여수 나이트 에일(여수맥주)'을 선보인다고 6일 밝혔다.

여수맥주는 크래프트비어(수제맥주) 아크(ARK) 시리즈로 유명한 코리아크래프트브류어리(KCB)가 출시한 상품으로 '여수 밤바다'를 떠올리게 하는 맑고 짙은 색상의 엠버 에일이다.

여수맥주는 전라남도에서 수확한 호품 보리를 사용해 고소하고 담백한 맛을 담았다. 다양한 맥아의 블렌딩을 통해 스페셜 몰트의 맛을 한층 더 다채롭게 이끌어냈다고 홈플러스측은 설명했다. 부담 없



6일 서울 등촌동 홈플러스 강서점에서 모델들이 코리아크래프트브류어리(KCB)의 새 지역맥주 '여수맥주(여수 나이트 에일)'을 선보이고 있다. /홈플러스

는 알코올 도수(5.0%)와 순하고 부드러운 목 넘김 또한 여수맥주의 특징이다.

/김유진 기자

11번가-폴앤코코 공동브랜드

SK플래닛은 11번가가 가구 제조사와 만든 공동브랜드 '코코일레븐'의 2018년 신상품을 내놓는다고 6일 밝혔다.

'코코일레븐'은 11번가가 2017년 11월 가구 제조사 '폴앤코코'와 공동으로 만든 브랜드로 현재 침실, 거실, 주방 수납가구 등 60종의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이번 신상품은 이사회수 시즌을 겨냥해 내놓은 '학생·서재 에디션' 4종이다.

11번가 MD가 상품개발 과정에 직접 참여해 원가구조부터 판매가로 이어지는 모든 비용을 함께 고려, 가격을 시중 브랜드보다 절반 수준으로 낮췄다.



코코일레븐 학생·서재 에디션 네이비블루 이미지. /SK플래닛

이번에 내놓은 학생·서재 에디션은 젊은 고객들이 선호하는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두 가지의 색상(네이비블루·어반그레이)을 적용했고 스크래치와 습기에 강한 LPM 마감재를 사용해 견고함을 높였다.

/김유진 기자

“취준생 주목!”

LG·현대차·코레일 등 대기업·공기업 공채 스타트

기아차·현대카드 인턴도 선발 한국철도공사, 서류전형 생략

현대자동차와 IBK기업은행, LG그룹 등이 상반기 신입사원 공개채용을 진행한다. 기아자동차, 현대카드 등은 상반기 공채시즌에 맞춰 인턴사원을 선발한다.

6일 잡코리아에 따르면, 현대자동차, IBK기업은행, LG전자, 한국철도공사 등이 3월 둘째 주 신입사원 공채를 시작했다.

현대자동차는 2018년 상반기 신입사원 정기 공채를 진행한다. 모집부문은 R

&D(기술경영 및 재료 등), Manufacturing(구매/부품개발, 플랜트), 전략지원(상품전략, 마케팅 등), S/W(S/W) 각 부문이다. 지원요건은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고, 당사 기준 영어성적 보유자(2016년 3월 13일~2018년 3월 12일 내 취득 성적), 학교를 졸업했거나 2018년 8월 졸업예정으로 2018년 7월에 입사 가능하다. 3월 12일 12시까지 현대자동차 채용 홈페이지에서 접수할 수 있다.

IBK기업은행에서 2018년 상반기 신입행원을 모집한다. 모집부문은 일반(금융영업), 디지털 부문 신입행원이며 학력, 전공 및 연령 제한이 없는 열린 채용

이다. 기타 자격요건은 2018년 6월 신입행원 연수 참가 후 2018년 7월 입행이 가능한 자,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남성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다. 지원자들은 서류전형, 필기시험, 역량면접, 임원면접을 거쳐 최종 합격하게 된다. 서류전형은 3월 16일 17시까지 IBK기업은행 홈페이지에서 지원할 수 있다. 한편 IBK기업은행은 금번 채용에서 일반(금융영업) 직군 125명, 디지털 직군 45명을 합해 총 170명의 신입행원을 채용할 계획이다.

LG전자는 2018년 상반기 신입사원 채용에 나섰다. 모집분야는 H&A사업부

부, HE사업본부, MC사업본부, VC사업본부, B2B사업본부, CTO본부, 한국영업본부 등 본부 별 각 분야 신입사원이다. 지원자들은 서류전형 후 인적성검사, 1차 면접, 건강검진, 2차면접, 최종전형을 거쳐 2018년 상반기 신입사원으로 최종 선발된다. LG전자 채용에 대한 세부사항 확인 및 입사지원은 3월 23일 16시까지 LG그룹 채용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한국철도공사는 3월 5일~7일까지 총 3일간 신입사원 채용을 진행한다. 모집 부문은 사무영업, 운전, 차량, 토목, 건축, 전기통신 부문 신입사원이다. 특히 이번 채용에서 서류전형을 진행하지 않

는 점이 눈에 띈다. 채용공고 입사지원 후 서류검증에서 응시자격 요건을 충족한 지원자는 모두 필기시험에 응할 수 있다. 필기시험을 통과한 지원자들은 면접 시험/인성역량검사, 철도적성검사/신체검사, 신입사원 교육(고졸공채 전형의 경우 인턴사원 근무로 대체) 전형을 거쳐 최종 합격하게 된다. 입사지원은 3월 7일 14시까지 한국철도공사 채용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한편 한국철도공사는 이번 채용에서 일반공채(680명)와 고졸공채(320명)를 합해 총 1000명의 신입사원을 채용할 계획이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온라인 채용토크쇼 'JOB식당'.

/CJ그룹

CJ그룹 신입 1000명 채용... 블라인드 확대

CJ제일제당 등 13개 계열사서 공채 인턴 사원·해외 학부생 전형도 진행

CJ그룹이 CJ제일제당, CJ E&M을 비롯한 13개 주요 계열사의 상반기 대졸 신입사원을 공개 채용한다고 6일 밝혔다. 서류 접수는 3월 7일부터 19일 오후 6시까지 CJ그룹 채용 홈페이지 및 모바일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신입사원 전형'의 지원 자격은 2018년 8월 졸업예정자를 포함한 4년제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다.

CJ그룹은 일반 신입사원 전형 외에도 블라인드 방식으로 채용하는 '리스펙트(Respect) 전형' 및 어학 등 글로벌 역량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글로벌인재 전형',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전역(예정) 장교 전형'을 분리해 모집한다.

또한 2019년 2월 졸업 예정자를 대상으로 한 '인턴사원 전형'과 해외 대학교 기졸업자 및 졸업 예정자를 위한 '해외 학부생 인턴 전형'도 동시에 뿜는다. 지원자들은 총 6개의 전형 중 자격에 맞는 전형을 선택해 접수해야 하며 중복 지원은 불가능하다.

CJ그룹은 신입사원 채용에서 지원자들의 직무 적합도를 가장 중요한 선발 기준으로 삼고 있다. 특히 블라인드 방식으로 채용하는 '리스펙트(Respect) 전형' 범위를 더욱 확대한다. E&M 공연사업, CGV 마케팅, CJ오쇼핑 방송기술 등 다양한 직무로 대폭 늘렸다. '리스펙트 전형'은 출신 학교 및 학점, 영어 점수 등 일명 '스펙'이라고 불리는 정보를 입사지원서에 일절 기재하지 않는다. CJ그룹은 올해 상반기 공채를 통해 약 1000명의 대졸 신입사원을 채용할 계획이다. /박인용 기자 parkiu7854@

2019 대입 수시 6개월 앞으로... “대학별 신설 전형 노려라”

소프트웨어인재... 학교장추천... 茶山인재

광운대·숙명여대·서울과기대

인하대·중앙대

아주대

신설전형, 전년도 합격자료 없어

대학별 모집 요강 꼼꼼히 살펴야

2019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원서접수가 6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학별 신설 전형과 전형 계획을 발표하고 있어 주목된다. 신설 전형은 대학의 인재 선발 목표의 변화 등을 담고 있기도 하지만 수험생들에게는 자신에게 유리한 전형이 확대될 수 있다는 의미도 있다.

6일 진학사가 각 대학별 2019학년도 수시모집 전형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인하대와 중앙대는 학교장추천 전형을, 성신여대와 한국기술교육대는 논술전형을 신설했다. 광운대, 서울과학기술대, 숙명여대는 소프트웨어인재 전형을 신설했다.

광운대·서울과기대·숙명여대가 신설한 소프트웨어인재 전형은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치러진다. 모든 전형에서 수능 최저학력기준이 없고, 서류평가와 면접고사로만 선발한다.

정부가 축소나 폐지를 요구하고 있는 논술전형을 성신여대와 한국기술교육대가 2019학년도에 대입 수시모집에서 신설하기로 했다. 성신여대는 논술 70%, 학생부 30%를 반영해 311명을 선발한다. 한국기술교육대는 논술 60%, 학생부 40%로 241명을 수능최저학력기준 없이 뽑는다. 두 대학

〈2019학년도 대학별 신설전형 현황〉

/자료=진학사

Table with 4 columns: 대학 (University), 전형명 (Type), 인원 (Number of Applicants), 전형방법 (Type). Rows include Kwangyun, Seoul National, Sookmyung, Inha, JoongAng, Ajou, and Korea Tech.

의 논술전형 신설에 따라 올해 논술전형 실시대학은 모두 33개 대학이 됐다.

아주대는 학생부종합전형 다산(茶山)인재전형을 신설했다. 이 전형은 전년도 자기추천전형(과학우수인재+글로벌우수인재)을 확대한 것으로 융복합사고역량, 실천적창의역량, 의사소통역량, 글로벌역량, 소프트웨어역량 등 핵심역량을 지원자격으로 제시했다. 수능최저학력기준이 없이 학생부와 자소서 등 서류 100%로 선발하므로 수능과 비교해 학교 평가에서 우위가 있는 수험생이 지원하면 유리하다.

인하대는 학생부종합(학교장추천)전형으로 286명을 선발한다. 전년도 학생부종합(학교생활우수자)전형이 사라지고, 새롭게 생긴 전형이다. 전형방법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서류 100%로 선발하지만, 지원 자격이 부여돼 고교별 5명 이내 추천 받은 학생만 지원 가능하다.

중앙대는 학생부교과 학교장추천전형을 신설해 경영학부, 전자전기공학부 등 12개 모집단위에서 150명을 선발한다. 경희대 등에서 선발하는 고교연계전형과 유사한 성격의 전형으로 교과가 정량적으로 평가되고, 수능최저가 없기 때문에 실제 지원자의 교과 성적은 상당히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 우연철 평가팀장은 “대학이 신설한 전형의 경우 전년도 합격자 자료가 없어, 각 대학별 모집요강을 잘 살펴봐야한다”고 조언했다.

/한용수 기자

Weather forecast for March 7th, including a map of Korea showing temperatures in various cities like Seoul, Incheon, and Daegu.

“입시 공정성 높인 대학에 560억” 65개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

학교 교육만으로 입시에 도전할 수 있는 대입 전형을 시행하는 대학을 지원하는 올해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에서 블라인드면접 등 대입의 공정성을 높인 대학 위주로 지원 대학을 선정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2018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기본계획’을 6일 발표했다.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은 대학이 고교교육을 내실화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입시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입학전형을 개선하는 대학에 2년간 입학사정관 인건비와 전형 연구·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65개 대학 내외를 선정하고 총 559억4000만원을 투입한다. 선정된 대학별 연

간 평균 8억6000만원이 지원되는 셈이다.

교육부는 ‘대입전형을 개선하는 대학’(유형 I) 약 60곳과 ‘2020학년도 모집인원이 2000명 이하인 지방(서울·경기·인천 제외) 중소형 대학’(유형 II) 약 5곳을 선정할 방침이다.

지원대학 선정에는 대학별 올해 대입전형 개선 계획과 2019~2020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바탕으로 ▲전형 단순화·투명성 강화 ▲전형 공정성 제고 ▲학교 교육 중심 전형 운영 여부 ▲고른기회 전형 운영 현황 등이 평가된다.

/한용수 기자



2018 metro

100 PLUS FORUM

2018 메트로 100세 플러스 포럼

100세시대 자산 불리기와 재테크

2018년 3월 28일 (수) 08:30 - 12:00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

[개회사]

이장규 메트로신문 대표이사

[축사]

유광열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강연]

<주식 재테크 전략>

이채원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 사장

<부동산 재테크 유효할까>

안명숙 우리은행 WM자문센터 부장

<프리 IPO 엔젤투자>

정은현 퀀텀인베스트먼트 대표

[패널토론]

<좌장>

김택동레이크투자자문 대표

<패널>

안명숙 우리은행 WM자문센터 부장

김현기 신한금융투자 신한네오50연구소장

이윤학 BNK자산운용 사장

김동엽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은퇴교육센터 상무

행사개요 및 문의

일시: 2018년 3월 28일 (수) 08:30 - 12:00

장소: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

주최: 메트로신문

후원: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등록: 이메일 및 메트로신문 홈페이지 접수 (사전등록 무료) forum@metroseoul.co.kr
(성함, 소속, 직책, 연락처 필수 기입)

문의: 메트로 100세 플러스 포럼 사무국 02-721-9826

‘역대 최고 대우’ 이정은·최혜진 베트남서 격돌

KLPGA 한국투자증권 챔피언십

김지현·오지현·장은수 등 총출동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2018 시즌 두 번째 대회가 베트남 호찌민에서 막을 올린다.

오는 9일부터 사흘간 호찌민의 트윈도브스 골프클럽(파72·6457야드)에서 열리는 KLPGA 투어 한국투자증권 챔피언십(총상금 7억원)에는 지난 시즌 6관왕 이정은(22)과 2018시즌 개막전 우승자 최혜진(19) 등 102명이 출전한다. 우승 상금은 1억4000만원이다.

이 대회는 2018년에 치르는 첫 대회지만 2018시즌 개막전은 이미 지난해 12월에 열린 바 있어 시즌으로 따지면 두 번째 대회다. 하지만 선수들이 동계 훈련을 마친 뒤 열리는 첫 대회라 한국투자증권 챔피언십을 통해 시즌 판도를 전망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정은이 지난 5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대방건설과 후원 계약 조인식에서 2020년 도쿄올림픽에 대한 각오를 밝히고 있다. /대방건설



작년 12월 베트남 호찌민 트윈도브스GC에서 열린 ‘효성 챔피언십 with SBS’ FR에서 최혜진이 4번홀에서 세컨샷을 하고 있다. /KLPGA

특히 시즌 개막전이었던 효성 챔피언십이 같은 장소에서 열렸던 만큼, 당시 우승했던 최혜진이 베트남과 좋은 인연을 계속 이어갈지 주목된다.

투어 신인인 최혜진은 효성 챔피언십을 제패하며, 신인 최초로 개막전 우승을 차지하는 진기록을 남겼다. 이에 맞서는 이정은은 2017시즌 상금, 대상, 평균타수, 다승, 인기상, 베스트 플

레이어 등 6관왕에 오르며 투어를 평정했다. 이정은은 이 대회를 통해 2018시즌을 시작한다.

이정은과 최혜진은 지난해와 올해 나란히 후원 업체와 계약을 맺으며 ‘최고 대

우’ 받았던 선수들이다.

최혜진은 지난해 8월 롯데와 후원 계약을 통해 ‘역대 신인 최고 대우’라는 수식어가 붙었고, 이정은은 지난 5일 대방건설과 조인식을 통해 ‘역대 최고 대우’를 받았다고 밝혔다.

두 선수의 계약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최혜진은 연 6억원, 이정은은 8억원 정도를 받고 성적에 따른 인센티브도 별도로 받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정은과 최혜진 외에 지난해 3승을 거둔 김지현(27)과 2승을 따낸 오지현(22), 신인상 수상자 장은수(20),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돌아온 장하나(26) 등도 이 대회 우승 후보로 거론된다.

한편 KLPGA 투어 2018시즌 국내 첫 대회는 오는 4월 5일 제주도에서 막을 올리는 롯데렌터카 여자오픈으로 예정돼 있다. /김민서 기자 min0812@metroseoul.co.kr

올봄 풋풋한 첫사랑 로맨스가 온다

중화TV ‘최호적아문’ 월, 화 편성

‘그 시절, 우리가 좋아했던 소녀’, ‘나의 소녀시대’의 계보를 잇는 첫사랑 로맨스 드라마가 온다. ‘최호적아문 : 가장 좋았던 우리’(총 24편, 원제: 最好的我們)가 5일 첫방송을 시작으로 월, 화요일 저녁을 책임진다.

‘최호적아문’은 지난 2016년 중국 동영상 플랫폼 아이치이에서 방영된 웹드라마로, 공부와는 거리가 먼 여고생 경경(탄송윈)과 우등생 위화이(류하오란)의 풋풋한 첫사랑 이야기를 그렸다. 향수를 자극하는 특유의 아날로그 감성으로 방영 당시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기준 누적 20억 뷰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다.

중국에서 가장 핫한 스타 중 한 명인 류하오란이 외모, 공부, 운동 등 어디에도 빠지지 않는 우등생 위화이로 분해 화제를 모은다. 순수하면서도 첫사랑 역에 잘

를 달성하는 등 중국 현지에서 큰 호응을 얻었다. ‘최호적아문’이 중화TV에 편성된다는 소식에 국내 시청자들 사이에서도 큰

어울리는 그의 순수한 매력이 설렘을 극대화하며 국내 시청자들을 흠뻑 빠져들게 만들 전망. 또한 그는 현재 중화TV에서 방영되고 있는 ‘망야방2: 풍기장림’에서 소평정 역으로 열연을 펼치며 국내에서도 인지도 높이고 있다. 중화TV 임진영 팀장은 “‘최호적아문 : 가장 좋았던 우리’는 특유의 따뜻한 영상미와 풋풋한 첫사랑 스토리로 올봄 시청자들의 설렘을 자극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스토리가 이해하기 쉽고 문장의 난이도가 높지 않아 처음 중국어 공부를 시작하는 분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많은 기대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신선선 기자 tree6834@

‘제2의 정해인 찾는다’ 연기자 오디션 개최

FNC엔터, 신인배우 육성 프로그램

FNC엔터테인먼트(이하 FNC)가 신인배우 육성 프로그램 ‘2018 FNC PICK UP STAGE : ACTORS(이하 FNC 픽업 스테이지 : 액터스)’를 개최한다.

배우 정진영, 정우, 이동건, 조재운, 박광현, 윤진서, 정해인, 정해성, 성혁, 박두식, 광동연, 정유진, 김연서 등이 소속돼 있는 FNC는 ‘FNC 픽업 스테이지 : 액터스’를 통해 정해인과 정해성의 뒤를 이을 새 얼굴을 찾는다.

‘FNC 픽업 스테이지 : 액터스’는 FNC에서 올해 처음 선보이는 신인 배우 육성 프로그램이다. 1차 서류전형, 2차 실물 오디션, 3차 입원 오디션, 그리고 최종 오디

션 순으로 진행되며 2차 합격자와 3차 합격자는 각각 연기 사전트레이닝과 프로파일 촬영을 진행한다.

최종 합격자 전원에게는 전속 혹은 연습생 계약 기회가 부여되며, 최종선발과 동시에 FNC의 체계적인 시스템을 통해 배우 트레이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최고점 합격자에 한하여 자사 아티스트 뮤직비디오 주인공으로 데뷔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1991년 이후 2006년 이전 출생자 중 배우를 지망하는 대한민국 남녀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3월 8일 오전 9시부터 31일 오후 6시까지 이메일과 우편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FNC 오디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민서 기자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 입장권 검색

올림픽의 감동을 다시한번!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대회

3. 9 개회식 19:00~21:50 / 3. 18 폐회식 19:00~21:20

성화채화행사 (정월대보름)
2018. 3. 2. (금) | 고창, 안양, 제주, 청도, 논산

지역축하행사
2018. 3. 4. (일) | 서울 창계광장
2018. 3. 5. (월) | 춘천 춘천역

서울 합화행사
2018. 3. 3. (토) | 잠실 올림픽공원 평화의 광장

2018. 3. 6. (화) | 원주 원주 시청
2018. 3. 7. (수) | 정선 아리랑촌놀이마당

2018. 3. 8. (목)
강릉 임영대중각광장

평창패럴림픽 앱

2018 평창 공식 앱
실시간 대회 정보 제공
(국어, 영어, 불어, 중국어, 일본어)

GO 평창
교통 정보 제공

TOUR GANG WUN
투어강원
강원도 숙박, 관광
음식, 교통 정보 제공

지니톡
29개 언어 번역기

개최도시 | 평창, 정선, 강릉

2018년 3월 그순간

당신은 누구와 어디에 계시겠습니까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 입장권 tickets.pyeongchang2018.com/paralympic



[마켓·부동산]
정영재 대표
NH투자증권
사장 내정
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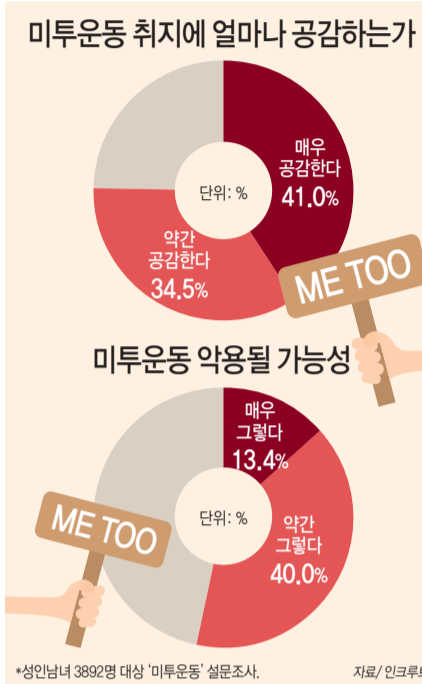


Life

[유통]
서울디자인재단
헤라패션위크 통해
신인디자이너 지원
니



확산되는 ‘미투’에 성인 50% “악용 우려도 있어”



남녀 75% ‘미투운동’ 취지 공감 정치적 이용 등 악용 가능성도

‘미투(Me Too)’ 운동이 사회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미투 운동의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악용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6일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시장조사기관 두잇서베이와 함께 국내 성인 남녀 389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미투 운동’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 응답자의 53.4%가 ‘미투 운동이 허위 사실 유포나 정치적 이용 등 악용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이어 ‘전혀 그렇지 않다’는 답변과 ‘별로 그렇지 않다’는 답변은 각각 8.9%, 3.7% 수준에 불과했다.

하지만 응답자의 상당수는 우리나라 성

범죄 및 성폭력 문제를 ‘심각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실제 이에 대한 설문에서 ‘매우 심각하다’(55.5%)와 ‘약간 심각하다’(30.2%)는 응답이 많았고, ‘별로 심각하지 않다’(2.5%), ‘전혀 심각하지 않다’(0.8%)는 응답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응답자들의 상당수가 성범죄 및 성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있었다. 조사결과 ‘나도 성폭력 및 성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응답에서는 59.4%가 ‘그렇다’고 답했다.

미투 운동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미투 운동의 취지에 얼마나 공감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75.5%가 ‘공감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미투 운동이 성범죄와 성폭행 피해 예방에 효과적인 것’이라고 보는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68.8%가 ‘그렇다’고 답했다.

한편, 미투 운동의 동참 여부에 대해서는 대다수가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전체 3892명 중 8.1%에 해당하는 312명만이 ‘참여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향후 미투 운동에 동참 또는 지속 참여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44.3%가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그렇다’와 ‘아니다’라고 답한 비율은 각각 33.9%, 21.0%였다.

서미영 인크루트 대표는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여성 폭력을 뿌리 뽑아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지만, 거짓 폭로나 2차 폭력 등과 같은 부작용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회적 여건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택시 이어 지하철요금도 오르나... 하반기 공공물가 ‘들쭉’

지하철 요금 지방선거 후 인상 논의 기본요금 200원 올린 1450원 계획

6·13 지방선거 이후 수도권 대중교통 요금 인상이 추진될 전망이다.

6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내년 지하철 기본요금을 200원 인상하는 방안을 ‘2017~2021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통해 서울시에 건의했다. 성인 기준 편도 1250원인 기존 요금을 1450원으로 올린다는 계획이다.

서울 지하철 요금은 2015년 6월 1050원에서 1250원으로 200원 오른 뒤 3년째 유지되고 있다. 이전 인상 시기가 2012년 2월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올해 요금 인상이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교통공사가 내세우는 요금 인상 근거는 고령화다. 65세 이상 노인 무임승차가 늘어 수익 증가가 미미한 상황에서 인건비 등 경비 증가로 적자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공사의 2016년 당기순손실은 3850억원이다. 서울 지하철 수송



2호선 삼성역에서 시민들이 지하철 개찰구를 통과하고 있다.

/뉴시스

원가는 1인당 1442원(2017년 기준 잠정치)인데, 평균 운임은 942원으로 원가 대비 65%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서울 지하철은 수도권과 연결돼 있어 독자적인 요금 인상이 어렵다. 요금을 올리려면 경기·인천 철도공사와 협의해 운임 조정계획을 세워야 한다. 인천교통공사는 인천 지하철 1~2호선 기본 요금을

1250원에서 200~300원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수도권 전철기관 협회가 끝난 뒤에는 시민 공청회와 시의회 의견 청취, 물가대책위원회 등 절차가 남아있다.

지하철은 수송원가 분석과 이를 위한 연구용역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아, 요금 인상 추진 속도가 버스·택시보다 상

대적으로 빠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시는 택시 요금 인상 여부도 논의하고 있다. 2013년 이래 5년째 동결중인 택시요금 인상을 위한 ‘택시 노사민정정협체’가 이달까지 심도깊은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택시 요금은 지방선거 일정상 올 하반기 진행될 전망이다.

시는 기본요금을 3000원에서 최대 4500원까지 올려 25% 인상하는 방안과 기본요금을 3000원에서 3900원으로 15% 가장 올리되, 택시 기사가 회사에 내는 사납금을 동결시켜 택시 기사의 실질적 소득을 증대로 이어지게 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경기도 역시 택시요금 인상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연구용역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수도권 대중교통비에 이어 상·하수도 요금 인상도 추진될 경우 하반기 공공물가가 가계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범종 기자 joker@

서울, ‘유기동물 예방 중성화’ 전국 첫 시행

애니멀호더 설득·지원할 것

서울시가 ‘유기동물 예방 중성화’ 사업을 전국 최초로 실시한다. 개체수가 늘어나 관리되지 못하고 유기되는 동물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서울시는 민간과 협업체계를 통한 선제적인 중성화로 ‘애니멀 호더(Animal hoarder)’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공중보건문제가 될 예방하는 모범사례를 제시하겠다고 6일 밝혔다. 애니멀 호더는 자신의 능력으로 키울 수 있는 동물보다 많은 동물을 사육해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동물유기 위



서울시 마포구에 유기된 동물들.

/서울시

험군’으로 풀이된다.

시는 서울특별시수의사회,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리와 협업체 유기동물 예방 중성화를 본격 추진한다.

시의 유기동물 예방 중성화 사업의 첫 대상은 마포구에 거주하는 김모 씨다. 그는 중성화 수술 없이 키운 유기동물이 30마리를 넘자, 관리와 소음 민원에 부담을 느끼고 지난 1월 개 12마리를 상자에 담아 유기했다. 김씨는 지난해에도 유기견을 키우다 버린 적이 있다.

시는 그가 사육하는 33마리의 개에 중성화수술과 입양을 지원하고 전문상담을 이어갈 계획이다. 서울시수의사회 마포구분회는 자원봉사 수의사들이 6일 김씨가 사육 중인 개들에 대한 중성화를 포함한 건강진단, 백신 접종, 동물등록을 지원한다.

이들은 지난 2월 개 3마리에 대해 이미 중성화 등을 실시했다. 나머지 사육중인 개에 대해서도 보호자와 협의해 진행할 계획이다.

동물보호단체 카리는 애니멀호더를 설득해 중성화수술을 받도록 하고 동물 입양을 연계해 사육관리가 가능하도록 돕는다.

시는 앞으로 동물보호 감시원을 통해 소유자가 적절한 동물 수를 유지하고 동물관리를 하는지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내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동물소유자는 증가하는데 동물유기 위험군에 대한 제도가 전무한 상황에서 국내 최초로 민·관, 전문가의 협업체로 해결한 사례를 제시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범종 기자

• LG전자는 국가대표 아이스하키팀과 스켈레톤팀, 피겨 차준환 선수를 후원합니다



질주는 멈추지 않기에- LG전자가 선수들의 꿈과 함께 달립니다

LG전자는 선수들의 꿈을 후원해오고 있습니다
스켈레톤 윤성빈 선수부터 아이스하키 국가대표팀, 피겨 차준환 선수까지-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LG전자가 당신의 계속되는 도전을 응원합니다
이 겨울, 뜨거운 감동을 선물해준 선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윤성빈 선수의 금빛쾌거를 축하합니다

 **LG전자**